
碩士學位 請求論文

고르바초프의 페레스트로이카에
관한 研究

指導教授 高 性 俊



國民倫理教育專攻

權 錦 姬

1989年度

고르바초프의 페레스트로이카에 관한 研究

이 논문을 教育學 碩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國民倫理教育專攻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提出者 權 錦 姬


指導教授 高 性 俊


1989年 月 日

權錦姬의 碩士學位 論文을 認准함.

1989年 月 日

 제주대학교 중서
主審 康根亨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副審 張元碩 

副審 高性俊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目 次

I. 緒 論	1
1. 研究의 目的	1
2. 研究의 範圍 및 方法	3
II. 페레스트로이카의 形成背景	5
1. 고르바초프의 登場	5
2. 政治理念的 落後性	7
3. 經濟的 沈滯	9
III. 페레스트로이카의 이데올로기적 構造	13
1. 페레스트로이카의 性格	13
2. 페레스트로이카의 目標	16
3. 페레스트로이카의 指導原則	18
IV. 페레스트로이카의 推進現況	27
1. 이데올로기의 再整備	27
2. 社會主義的 民主化	30
3. 社會의 活性化	32
4. 經濟改革	34
5. '새로운 思考'와 平和共存政策	41
V. 結 論 : 要約 및 展望	47
참고문헌	53
ABSTRACT	57

I. 緒 論

1. 研究의 目的

지금 蘇聯에서는 自國의 體制가 안고 있는 위기상황을 탈피하고자 社會 全部門에 걸친 근원적이고도 혁신적인 변화를 꾀하고 있다.

즉 <페레스트로이카(perestroika : 再建, 再編)> <글라스노스트(glasnost : 開放)> <우스코레니에(uskorenie : 加速化)> <데모크라치아(democrazia : 民主化)> 등의 구호 속에서 추진되고 있는 <改革>의 모습이 바로 그것이다.

그것은 소련공산당 서기장 브레즈네프의 사망에 이은 안드로포프와 체르넨코의 짧은 과도기를 거친 뒤 1985년 3월 11일 소련 공산당 중앙위원회 특별총회의 지지로 최고 권력자의 자리에 오른 농업전문가 출신의 미하일 고르바초프(Mikhail Gorbachev)가 표방한 것이다.

고르바초프는 브레즈네프 체제의 18년간 장기집권으로 인한 시대상황에 맞지 않는 사회주의 이념, 사회 전반적인 비능률과 낭비풍조, 형식주의, 권위상실, 무관심, 경제침체, 관료주의의 타성에 젖어 경직화되어 있는 국가의 제반조직 등을 물려 받았다.

이러한 체제 위기적 諸現象으로 말미암은 사회 재편성의 필요에 따라 고르바초프는 <페레스트로이카>로 상징되는 改革政治를 시도하게 된 것이다.

러시아어인 перестройка(perestroika)라는 단어는 '페레(пере)- 어떤 행위의 변경, 반복, 재개 등을 의미하는 접두사-와 '스트로이카(стройка)-건축, 건조, 건설이라는 명사-를 합성한 말로서 '再建한다, 再編한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 고르바초프는 이 말을 단순한 '재건, 재편'의 의미로서가 아닌 '革命的 變革'이라는 뜻으로 사용하고 있다.

1) 강인덕 편, 「페레스트로이카」(서울 : 극동문제 연구소, 1988), p. 12.

고르바초프가 집권한 이래 가속화되고 있는 소련의 변화는 그 변화의 중요성과 변화 속도의 엄청난함으로 인해 서방언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신문과 잡지 등에서도 자주 다루어짐으로써 그 관심도는 가히 전세계적으로 높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페레스트로이카에 대한 이 같은 요란한 논의의 홍수 속에서 우리가 그것을 과연 얼마만큼 정확하게 인식하고 이해하고 있는가는 의문이다.

우리가 蘇聯과의 정치·경제·사회·문화적 접촉과 관계개선이 현실적으로 요구되고 부분적으로나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소련의 현실과 소련에서 전개되고 있는 개혁정책의 실상에 대해 과연 얼마나 알고 있는가는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인 것이다.

고르바초프의 페레스트로이카에 대한 현실적인 평가는 구구하다.²⁾ 긍정적인 평가는 소련체제의 부정적 현상을 고르바초프처럼 솔직하게 인정한 지도자가 없었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그의 개혁의지는 충분히 신뢰할 수 있다는 주장임에 반하여, 부정적인 평가는 고르바초프가 진심으로 혁명적 변혁을 시도하고 있다면 사회주의 모순의 근원인 一黨獨裁와 마르크스-레닌주의 원칙을 수정해야 하는데 지금까지 그러한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음으로 해서 역대의 다른 지도자들처럼 정통성의 확립에 필요한 상징을 부각시키려는 가식적 주장에 지나지 않는다는 혹평이다.

그러나, 이러한 엇갈리는 시각 속에서도 우리는 고르바초프가 제시하고 있는 페레스트로이카의 정치적 意味를 정확히 이해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본다. 왜냐하면 이러한 노력 가운데서 變化하고 있는 것과 變化하지 않는 것을 區分하고, 나아가 超強大國으로서의 소련체제의 實體를 좀 더 명확히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페레스트로이카는 공산주의 體制가 보여주는 變動의 깊이와 한계를 나타내는 하나의 기본적인 예로서, 比較共產主義的 觀點에서 볼 때 커다란 學問的 意味를 갖는다고 볼 수 있으며, 또한 그것은 소련의 對外政策의 變化를 보여줌으로써 신데팡트와 이에 따른 한국과의 관계개선을 가져오는 등 국제질서의 변화와 우리의 대외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現實的 意味를 아울러 갖고 있다고 하겠다.

2) 전계서, p. 13.

이에 본 研究는 이러한 意味에 따른 페레스트로이카의 形成背景, 이데올로기적 構造, 現況 그리고 展望 등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다.

2. 研究의 範圍 및 方法

따라서 본 논문은 위의 목적에 따라 다음과 같은 세부사항에 초점을 맞추려고 한다.

(1) 고르바초프가 역대의 어느 지도자들보다 과거의 소련체제에 대하여 솔직하게 비판하면서 개혁정치인 페레스트로이카를 표방, 추진케 된 근본적인 배경은 무엇인가?

(2) 페레스트로이카는 과연 소련체제의 기본이념인 마르크스-레닌주의 원칙을 수정하는 이데올로기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인가?

(3) 페레스트로이카의 정치적 의미는 무엇이며, 그 정치개혁의 현황은 어떠한가?

(4) 페레스트로이카의 경제개혁의 내용은 무엇이며, 그것은 소련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5) 페레스트로이카는 과연 소련사회의 활성화를 효과적으로 가능케 하고 있는가?

(6) 페레스트로이카의 외교정책적 차원에서 내세우고 있는 원칙은 무엇이며, 그것은 세계 여러 국가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고 있는가?

(7) 페레스트로이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諸문제는 어떤 것이며, 페레스트로이카의 장래를 어떻게 전망해 볼 수 있는가 하는 것들이다.

이와 같은 문제를 설명하기 위해 本 論文은 다음과 같이 구성될 것이다.

제2장에서는, 페레스트로이카의 形成背景을 설명하고자 함에 있어서 먼저 고르바초프의 登場을 살펴본 후, 改革의 주요배경이 되는 政治理念的 落後성과 經濟의 沈滯를 考察한다.

제3장에서는, 페레스트로이카의 이데올로기적 構造로서 그 性格 및 目標, 指導原則에 대해서 살펴본다.

제4장에서는, 페레스트로이카의 推進現況을 알아봄에 있어 우선 이데올로기적 變化의 모습과 政治·經濟·社會改革의 전반적인 內容 및 現況을 살펴보고, 外交政策의 原則과 그에 따른 現況을 考察한다.

제4장에서는, 페레스트로이카의 推進에 따라 나타나고 있는 課題와 展望에 대해 살펴본다.

本 論文은 고르바초프의 改革政治를 정리·분석함에 있어 이와 관련된 1·2차 資料들을 위주로 文獻分析의 方法을 택하였다.

본 논문에서 기본자료로 삼은 것은 고르바초프 자신의 著書인 「페레스트로이카」를 비롯한 그의 연설문들이다. 그 중요한 예로는 1985년 4월의 제27차 소련 공산당 당대회, 동년 6월의 당 중앙위원회 보고, 동년 10월의 당 중앙위 총회 보고, 1985년 7월의 블라디보스톡 선언, 1987년 당 중앙위 1월 총회 보고, 1988년 3월의 신 베오그라드 선언 등이다. 또한 국내외 여러 학자들의 연구 결과물들을 2차 자료로 삼고, 부수적으로 관련되는 정기간행물을 참고하였다.



Ⅱ. 페레스트로이카의 形成 背景

고르바초프체제 등장 이후 소련에서의 개혁을 가속화시키고 있는 주요 배경으로 는 새로운 지도층의 등장을 전후한 승계 이행 과정에서 흔히 나타날 수 있는 정책적 차원에서의 새로운 대안의 제시, 소비에트체제의 누적된 구조적 병폐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과 이의 해결을 위한 정책 전환의 의지를 들 수 있다.

소비에트체제의 위기상황을 한 마디로 말하면 中央集權經濟體制와 硬直化된 政治·社會體制가 갖는 제도적이고 기능적인 역할구조의 非現實性에서 결과된 현상이라고 볼 수 있겠으나, 여기서 소련의 개혁주의 세력들이 분석하고 있는 그들 사회의 위기 구조를 政治理念的인 낙후성과 社會組織의 非能率性, 經濟的 沈滯와 같은 소련사회의 전반적인 정체성과 비능률성으로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서는 우선 고르바초프의 登場에 대해 설명하고, 政治理念的 落後性과 經濟的 沈滯를 차례로 살펴보고자 한다.

1. 고르바초프의 登場

체르넨코의 뒤를 이룬 고르바초프의 등장은 여러 측면에서 상당한 관심의 초점이 되어 왔다. 흔히 '브레즈네프世代'라 불리우는 一群의 지도자들이 장기간 유례없는 직위의 안정을 구가하면서 군림한 후 이제는 사망과 고령으로 더 이상 소련정치를 장악할 수 없는 상황에 도달해 있었다.

스탈린의 대숙청 직후 1930년대 말 30代의 젊은 나이로 소련 연방 내각의 장관 혹은 주요 지역의 지구당 제1서기가 된 후 40여년간이나 권력의 상층부를 구성하였던 코시긴, 수슬로프, 브레즈네프, 안드로포프, 우스티노프, 체르넨코 등의 지도자들이 사망하고 티호노프, 그로미코 등은 이미 80代이거나 70代 후반의 고령이었다. 이러한 시점에서 50代의 젊은 서기장 고르바초프의 등장은 오랫동안 유보돼 왔던 최 고위 지도층의 대폭적인 교체의 필연적인 시발이란 측면에서 특별한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²⁾

지도자의 數的인 교체 이상으로 관심의 초점이 되고 있는 것은 世代交替라는 측면이다. 1917년의 볼셰비키 혁명 이후 스탈린의 혁명과 제2차 세계대전 등의 급격한 환경적 변화 속에 살아오면서, 소련사회의 발전과정에서 공통적으로 얻는 특수한 경험 때문에 각각의 세대 사이에 상이한 가치관과 행동정향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³⁾

고르바초프가 대표하는 한 그룹의 세대를 ‘戰後世代’ 혹은 ‘스탈린 이후 世代’라고 한다. 고르바초프는 1950년에 모스크바 대학 법학부에 입학, 1952년에 입당하였으며, 대학을 졸업한 1955년 6월 고향인 스타브로폴리市的 콤포몰 제1서기로서 의미 있는 정치생애의 첫 출발을 하게 되는데, 이 시기에 그는 후르시초프의 스탈린 격하 운동을 체험한다. 또한 그는 1961년에 후르시초프가 2차로 스탈린 격하를 단행한 22차 당대회에 처음으로 대의원 자격으로 참가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스탈린 이후 世代’는 소련체제의 기능상의 단점들을 잘 인식하고 있고 현체제에 대한 상당한 개혁 의지를 갖고 있는 세대라고 간주된다.

더욱이 컬럼비아 대학의 비알러교수같은 학자는 ‘브레즈네프세대’의 퇴진과 ‘스탈린 이후 세대’의 등장은 단순한 개인이나 어느 집단의 교체 이상의 의미, 즉 역사적인 새로운 시대로의 돌입가능성을 의미할 수 있으므로 소련의 정치발전을 보는 획기적인 한 사건이 될 수 있다고 역설한다.⁴⁾

소련이라는 현실적 한계 상황 아래서 혁명적인 돌파구를 찾았던 지도자가 스탈린이었고, 그 이후 전개과정 특히 사회제도적 측면 중에서도 경제제도에 있어서는 여러 차례 경제계획 및 운용의 효율화를 위한 노력이 있었지만 고르바초프 이전의 기본 골격은 스탈린의 모델에 대한 답습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스탈린은 또한 대숙청 과정에서 ‘스탈린에 의해 형성된 행동규범에 투철한 새 세대의 인물들’로 소련사회의 제반분야의 지도자들을 대거 교체시켰다.

2) 그 당시 고르바초프의 나이는 정치국 정위원 평균연령이었던 67세 보다 13살이나 아래였다.

3) 문수언, “고르바초프의 개혁과 그 한계”, 「소련의 이데올로기와 발전」 한국정신문화연구원세미나(1988. 10), pp. 42~43.

4) 상계논문, p. 44에서 재인용.

이 때 등장한 世代가 오랫동안 최고위 지도층을 이뤄왔던 '브레즈네프세대'이기 때문에 이 세대야말로 스탈린의 살아 있는 유산으로서 스탈린 체제의 가장 강력한 유지력으로 작용해온 것이 사실이다.⁵⁾

그렇기 때문에 이 세대의 퇴진과 '스탈린 이후 세대'로서의 교체는 후속인사의 폭넓은 범위 뿐 아니라 기본적인 체제적 측면에서까지 새롭게 부각되고, 재조명될 變化의 가능성을 이미 내포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2. 政治理念的 落後性

소비에트체제가 성립된 이래 소련에서 관제적인 통치이데올로기로 자리잡기 시작한 마르크스-레닌주의가 그들의 독특한 역사발전의 理想과 現實的인 원활한 체제유지를 위한 政治的 統合에 기여한 역할은 대단한 것이었다.

특히 스탈린의 專制政治가 휩쓸던 1920년대 전반부터 1956년 소련 黨 제20차 전당대회까지 약 30년간 소련은 가히 이데올로기의 독주시대이며, 이데올로기 至上의 시기이기도 하였다.⁶⁾

스탈린주의는 이데올로기적으로 계급의 적을 소멸하고 사회주의의 기초를 건설한다는 것이며, 정치적으로는 당과 국가의 통제와 동원에 의한 경제적 목표의 향상을 의미하였다. 따라서 레닌에 의해 제기되었던 민주적 집중제는 민주적 요소의 희생과 집중주의의 강화형태로 나타났으며 당과 사회간에 적대적 관계를 설정하여 당의 도덕적, 지도적 우월성이 극단적으로 강조되었다. 이와 함께 스탈린의 개인권력이 '권력의 순환'논리에 의해 강화되었다.

경제적으로는 일국 사회주의의 가치 아래 자급자족적 폐쇄경제체제의 정비를 위한 중공업 중심의 경제구조의 집단구조에 근거한 私경제 部門의 전면적 파괴, 이에 따른 계획·통제 관리체제의 등장과 농업부문의 집단화 등을 들 수 있다.

5) 전계논문, p. 44.

6) 조정남, "고르바초프의 개혁과 정치이념", 「국민윤리연구」, 제26호, 한국국민윤리학회 (1988. 7), p. 198.

또한 소련에서의 개인승배체제의 등장은 정치과정을 경직화하고 현대적 문제해결에 위험부담을 가중시켰으며 동시에 공산당이 사회의 여론형성과 지도기능을 원활히 하지 못하고 사회에 군림하는 지배관료 집단으로 화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공산당의 경제체제의 개입은 당과 국가행정조직과의 구분을 애매케 하는 黨-政의 혼합화 현상을 초래하였고 이는 다시 경제의 정치적 예측과 政-經 고착화 현상을 자아내었다. 이 현상은 경제원칙의 무시와 각종 부패의 원인이 되었으며, 경제개혁은 따라서 정치개혁을 불가피하도록 하는 요인이 되었다.

소련에서의 관료화 문제는 사실상 심각한 것이다.⁷⁾

소련관료의 수는 그 어떤 자본주의 국가보다 많으며, 이는 정부가 수행해야 할 부분이 자본주의 국가의 경우와는 양적·질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정부당국에서 일하는 노동력이 상대적으로 많이 필요한 까닭이다. 문제는 숫자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소련관료들이 책임성을 회피하고 주어진 일만 처리하는 안주적 정체 상태로만 일관하는 그지 없이 관료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을 뿐만 아니라 권위주의적인 성격도 소유하고 있다는 데에 있다.

실제로 소련 공산당원들은 스스로 노동계급과 기타 근로세력의 전위임을 자부해왔고 그들과 이해를 같이 함을 명백히 해왔으나 이러한 전통은 변질되어온 것이 사실이다.

국제적이고 과감하며 민주적이었던 초기 볼셰비키의 특성은 국수적이고 정체적이며 거수기적인 모습으로 타락해 왔으며, 토론의 자유가 결핍된 상황에서 의견의 소재가 불확실해지고 자연히 전기구적 의사표출이나 논쟁이 불가능하였다. 간부들의 직위는 종신적인 것이 되고 권력이 남용되는 속에 명령하달은 있으되 의견의 상달은 부재하였다. 따라서 사회주의라는 이념 속에서 필수적으로 보여져야 할 일반근로자들의 의견수렴과정은 결여되었다.⁸⁾

소련관료제의 문제는 당이나 정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단위공장의 감독제, 집단

7) 강우란, "레닌주의는 부활할 것인가?", 데이비드 맥렐런, 강우란역, 「마르크스의 세계」(서울: 책세상, 1988), P. 238.

8) 상계논문, p. 2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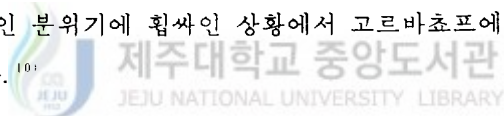
농장제에서도 어김없이 나타났으며 이러한 관료주의의 연장은 이니셔티브의 결핍을 초래하였고 소련 경제의 낙후로 곧장 이어진 것이다.

이렇듯 스탈린주의가 소련정치에 미친 영향은 막대하며 그 이데올로기의 권능은 후르시초프 이래로 오늘에 이르기까지 잦은 지도자 교체에 따른 통치이데올로기 구조의 재조정과 재해석 등의 반복을 통하여 그가 가져왔던 절대성과 무오류성의 신화가 벗겨지기 시작하였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그들 관제이데올로기가 지향하는 이상의 불투명성과 현실상황에 대한 설명력의 결여 등과 같은 본원적인 결함이 나타나면서부터 소련 사회에서 이데올로기가 가지는 의미와 권능은 상대적으로 추락하기 시작하였다.

즉 이러한 상대적 가치추락의 원인은 소련에서의 마르크스-레닌주의의 기능둔화와 소련내부의 사회·문화적인 분화, 이에 따른 개별분야에서의 전문성의 제고, 그리고 국민들간에 보편화 되고 있는 다양성의 추구 등과 같은 새로운 여건의 형성에 따라 이데올로기의 이상논리에 따른 허황성의 인식 등에서 찾을 수 있다.⁹⁾

이처럼 소련을 둘러싸고 있는 대내외적 환경이 거대한 이데올로기체제라고 할 수 있는 소련을 점점 비이데올로기화시키고 탈이데올로기화시키는 데 커다란 작용을 해오고 있으며 또한 체제구성원들의 상당수가 그들의 관제이데올로기에 대하여 냉소적이거나 방관적인 분위기에 휩싸인 상황에서 고르바초프에 의한 개혁정치가 시도되고 있는 것이다.¹⁰⁾



3. 經濟的 沈滯

페레스트로이카는 1987년 1월에 개최된 소련공산당 중앙위원회 총회를 계기로 고르바초프체제의 公式的인 指導理念으로 구체화되었다고 볼 수 있으나, 고르바초프는 집권 이전부터 소련 사회의 문제점을 특히 경제부문에 집중하여 지적하면서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즉 그는 당시기장이 되기 3개월 전인 1984년 12월 3일 당

9) 조정남, 전계논문, p. 198.

10) 상계논문, p. 198.

료와 정부관리가 모인 준비밀회의 석상에서 “생산관계 부문에서의 변화 필요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소비에트 생산관계의 침체된 보수주의를 극복하지 못했다”는 주장으로 연설을 시작했는데 이는 1956년 후르시초프의 스탈린 격하 연설이 가졌던 정치적 효과만큼이나 중요한 경제적 의미를 지닌 것이었다.¹¹⁾

불세비키정권의 계획경제를 추구하여 이것이 확립된 스탈린 치하에서의 소련경제는 고도성장을 거듭하여 제2차 세계대전 후에는 양대강국의 하나로 부상하였고, 후르시초프가 집권한 1950년대와 60년대의 소련경제는 각각 연평균 3%의 경제성장률의 하락을 보여 주면서 1980년대 전반에 걸쳐서까지 장기적인 성격을 띠게 되었으며 그 해결의 과제는 바로 고르바초프에게로 넘겨지게 되었다.

실질적으로 1976년부터 1984년까지 중국의 평균 성장률은 7.5%인데 반해 소련은 그 4분의 1인 1.8%에 그치고 있었다.¹²⁾

바로 이 기간 중에 소련의 전례 없는 경제침체와 위기가 발생한 것이다. 특히 1979~'82년 기간 중 공업생산은 40%나 하락했고, 농업생산 역시 감소하였다. 생산차원의 이용도가 급격히 낮아졌으며, 모든 사회생산분야에 걸친 효율성 지표의 증가율이 둔화되었다. 실제로 노동생산성이 부진한 가운데 자본투자수익은 감소하였으며 전반적인 자본산출률이 낮아졌다. 1981~'85년 기간의 후반에 이르러 상황은 다소 호전될 기미를 보였다.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이 기간 중의 계획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였으며, 국가 경제의 형편은 심각한 국면으로 전락하였다.¹³⁾

다음 도표는 소련의 5개년 기간 동안의 단위 국민소득 성장률을 나타낸 것이다.¹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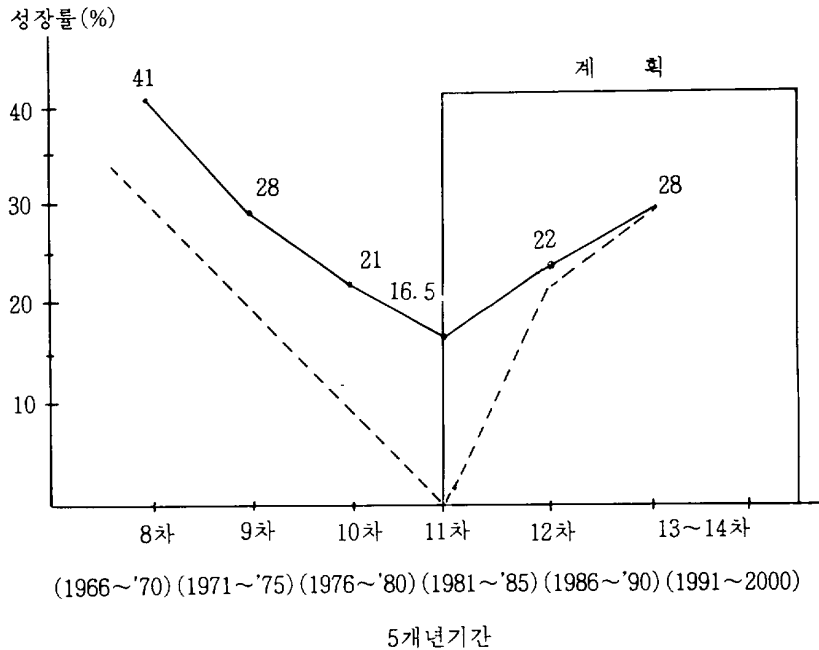
11) 진장철, “소련의 개혁정책과 현실주의 외교론, 『현대사회』(1988. 겨울호), p. 37.

12) 상계논문, p. 37.

13) 아벨 아간베기안, 김태홍·장오현 역, 『페레스트로이카의 경제적 도전』(서울:우아당, 1989), pp. 10~11.

14) 상계서, p. 10.

〈도표1〉 소련의 5개년 기간 단위 국민소득 성장률, 1960~2000



현재 소련의 경제구조는 낙후성과 경직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광업과 농업은 지나치게 과장되고 있으며 제조공업과 원자재 가공업은 발전이 뒤지고 있다. 3차 산업인 서비스부분의 발전은 더욱 보잘 것이 없다. 또한 생산제품의 품질, 효율성, 경쟁력 등도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대부분의 생산시설이 낙후되어 있다. 상품과 서비스의 공급이 유효수요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소비와 복지서비스를 공급하는 분야들도 전반적인 사회부문들과 마찬가지로 심각한 낙후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 자연히 실물성장의 내용을 결정해 주는 생산구조가 낙후될 수 밖에 없다.¹⁵⁾

이와 같은 소련 경제의 침체현상, 특히 經濟成長率의 減退現象에 대한 원인은 단순하지 않다. 서방 경제학자들의 소련 경제성장에 관한 경제원리적 분석에 의하면, 소련 경제성장률의 감속원인은 자본축적에 대한 수확체감(取獲遞減) 현상과 저수준

15) 전계서, pp. 12~13.

의 기술, 그리고 기술향상이 낫다는 데 있다고 한다.¹⁶⁾

그 이외의 원인으로서의 생산 하부구조의 애로현상, 시베리아 개발에 대한 과중한 투자, 계획기구의 복잡성, 노동자의 사기저하 및 노동규율의 문란 등 소련型 計劃經濟가 갖고 있는 특유한 결함을 들 수 있다.

이는 지금까지의 소련 경제전략이 외연적(外延的) 성장전략에 의존함으로써 자본 축적을 통한 성장전략은 한계에 이르렀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즉 소련은 古典的 성장전략¹⁷⁾에 근거를 두고 '보다 많은 투자, 보다 많은 노동, 그리고 보다 열심히'라는 구호와 이를 뒷받침하는 정책은 소련경제를 소생시키지 못한다고 보는 것이다.

그리하여 비록 그 효과가 불확실하고 장기적인 추진이어야만 그 효과를 거둘 수 있으나 경제적 효율의 증대와 요소생산성의 지속적인 상승을 위해 포괄적이고 적극적인 경제정책을 채택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이상에서 보았듯이, 政治理念的인 落後性和 經濟的 沈滯라는 두 요인을 개혁하지 않으면 소련체제는 더욱 심각한 위기에 빠질 것이라는 사실이 이러한 위기상황 탈출을 위한 고르바초프의 개혁정치를 추진케 한 主要 背景이 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16) 서재명, "소련의 경제개혁에 관한 연구", 「슬라브연구」, 제4권, 한국외국어대 소련 및 동구문제 연구소 (1988), p. 80.

17) 이는 1928년 소련이 제1차 5개년 경제계획을 시작할 때 스탈린에 의해 채택된 中央集權的인 計劃制度를 중심으로 농업집단화와 중공업 중심의 공업화를 기저로 하는 經濟運營을 통한 經濟發展戰略을 말한다.

Ⅲ. 페레스트로이카의 이데올로기적 構造

페레스트로이카의 이데올로기적인 구조에 대해서 먼저 그 革命的이고 過渡期的인 성격과 理想目標와 當面目標를 동시에 내포하는 개혁목표 및 지도원칙을 통해 살펴 보고자 한다.

1. 페레스트로이카의 性格

페레스트로이카라는 말은 그것이 대상으로 하고 있는 영역이 매우 광범위하고 다양하므로 그것이 함축하는 의미와 성격을 분명하게 규정하기는 어렵다.

일반적으로 페레스트로이카는 소련의 대내적인 사회개혁을 통한 정책이나 운동으로, 또는 체제 정통성 확보를 위한 이데올로기 조작의 의미에 추가하여 이를 총체적인 소련의 社會主義 發展過程에 나타나는 ‘一定한 歷史的 段階’로 규정함으로써 그것의 의미를 격상시키고 있다.

고르바초프는 페레스트로이카가 소비에트 사회의 혁명적 쇄신을 위하여 그 자체의 형식과 논리를 갖추고 있는 비교적 장시간에 걸친 ‘과도기적’ 과정으로, 이는 사회주의 진보의 ‘일정한 역사적 단계’이기 때문에 이 단계를 거치면서 소련의 사회주의는 보다 원숙되며 공산주의 실현의 가능성을 보다 구체화할 수 있다고 본다.¹⁸⁾

페레스트로이카가 사회주의 발전과정, 특히 소련 사회주의 발전과정에서 나타나는 하나의 역사적 단계라고 하는 인식도, 고르바초프가 보이고 있는 이 단계에 대한 다음과 같은 성격 부여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이해될 수 있다.

첫째, 고르바초프는 페레스트로이카를 혁명 내지는 혁명과정으로 파악한다. 페레스트로이카가 혁명인 것은, 근본적인 변혁을 통해 소비에트사회를 사회·경제·문화적으로 획기적으로 발전시켜 질적으로 새로운 국가로 변모시킨다는 것은 분명 혁명

18) 조정남, “페레스트로이카를 해부한다”, 『민족지성』(1988. 6), p. 19.

적 사업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회주의도 혁명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것을 중요한 사실로 여기는 것은 사회주의를 그 본질상 역동적으로 보기 때문이다.¹⁹⁾

페레스트로이카가 혁명적 과정인 것은 이것이 사회주의 발전에 있어서 본질적 성격의 실현에 대한 일대도약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고 있는 까닭이다.²⁰⁾

고르바초프는 또한 페레스트로이카의 성격을 혁명으로 규정짓는 것은 그것이 원대한 목표를 지니며, 근본적이고 비타협적인 변화를 추구할 뿐 아니라, 그 영향력이 위에서부터 아래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영역에 걸쳐 미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한다.

페레스트로이카가 혁명이자 혁명적 과정이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는 점진적인 개혁 방식은 채택될 수 없으며 또 그것은 기존의 많은 부분에 대한 과감한 파괴와 단절을 전제로 한다. 페레스트로이카는 특히 소비에트의 사회·경제적 발전을 가로막는 갖가지 장애물, 낡은 경제관리방법, 독단적이고 상투적인 약속 등을 단호하고 근본적으로 제거시키는 데 그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본다.

그리고 이렇듯 革命的 過程인 이유로 전체 소비에트 사회와 구성원들에게 커다란 이해관계를 미치고, 낡은 것과 새로운 것들 간의 갈등을 야기시키기도 하며 충돌을 초래할 수도, 구태의연한 사고에 익숙한 자들에게 일대타격을 가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페레스트로이카의 추진과정에 나타날 수 있는 이러한 이해관계와 갈등, 충돌, 타격은 소비에트체제를 새로운 개척지로 이동시켜 그것을 한 단계 더 높은 차원으로 발전시키려고 하는 포괄적이고 전체적인 장기적 이익을 위해 극복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으로 본다.

고르바초프는 이처럼 페레스트로이카를 소비에트체제의 전반적인 개혁과 재편을 겨냥한 혁명으로 파악하면서 이는 또한 '위로부터 革命'과 '밑으로부터의 革命'의 성격을 동시에 가지는 것이 그 두드러진 특징일 수 있다고 본다.²¹⁾

19) 고르바초프, 하용출 역, 「페레스트로이카」(서울: 사계절, 1988), pp. 68~69.

20) 고르바초프, 상계서, p. 70.

21) 조정남, 전계논문, p. 20.

즉, 페레스트로이카는 공산당과 그 지도층에 의해 계획·지도되는 것이므로 '위로부터의 革命'의 성격을 가지며, 또 이는 당과 국가기구의 최고위층이 계획을 기안하였고 그 시행을 주관하고 있어 이 과정은 힘에 의하여 억지로 추진되는 '위로부터의 혁명'일 수 있다.

그러나 페레스트로이카가 오늘날과 같이 그 성과를 나타내 보일 수 있었던 것은 위로부터의 이니셔티브가 기층운동과 융합되고 또 노동자들의 기본적이고 장기적인 이익에 부합될 수 있었으며, 이에 따라 대중들이 자기 자신들의 이익에 합당한 것으로 받아들여 적극적으로 열성적으로 이를 지지하지 않았다면 페레스트로이카는 제 기능을 발휘할 수도, 정착될 수도 없었으므로 그것은 '밑으로부터의 혁명'적인 성격도 함께 지닌다는 것이다.

둘째, 고르바초프는 페레스트로이카를 소비에트체제가 공산주의로 이행하는 과정에 위치한 '過渡期'단계로 파악한다.²²⁾

그는 페레스트로이카를 소비에트 사회주의의 진보과정에서 나타나는 '일정한 역사적 단계'로 인식하면서 이 단계는 그 성격상 사회주의 발전과정에 위치하는 하나의 과도기라는 것이다.

또, 이는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 특수하게 나타날 수 있는 과도기 형태로서 마르크스-엥겔스에 의해 예측된 사회주의 발전과정에서 나타나는 과도기 개념에 적합한 또 하나의 소비에트단계로 보고자 한다.

따라서 이런 논리에서 보면 페레스트로이카는 공산주의 사회를 추구하는 긴 과정에서 나타나는 여러 단계의 과도기 가운데 하나이며, 이러한 과도기 단계는 보다 새로운 사회건설을 위해 필요한 과정이라는 것이다. 고르바초프는 페레스트로이카를 소련 사회주의 발전과정에서 필수적으로 거치지 않을 수 없는 과도기의 한 형태로 규정함으로써, 이미 기존 唯物史觀의 일반논리 속에 정식화되고 있는 과도기간 특유의 체제적 특수성을 페레스트로이카를 추진하고 있는 지금의 소련에서도 그대로 합리화시키고 있다는 사실로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²³⁾

22) 조정남, 전제논문, p. 21.

23) 조정남, "사회주의체제의 개혁구도", 「국민윤리연구」제27호, 한국국민윤리학회 (1988.12), p. 164.

이상에서 본 것처럼 고르바초프는 페레스트로이카를 소련의 발전과정에서 자리잡을 수 있는 일정한 역사적 단계로, 이 단계는 바로 근본적이고도 단호한 혁명적인, 또한 보다 나은 사회건설을 위한 과도기적인 과정이라는 특징으로 그 성격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논리에서 보면 페레스트로이카의 슬로건을 걸치고 행해지고 있는 체제개혁을 위한 모든 정책들도 혁명적이고 과도기적인 두 가지 속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2. 페레스트로이카의 目標

페레스트로이카는 소비에트와 사회주의체제가 걸어왔던 과거에 대한 평가에서 시작, 이러한 평가를 전제로 당장 현실적으로 추구해야 할 당면목표를 제시하려 하며, 이에 더하여 장기적인 안목에서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할 이상목표에 이르기까지 소련의 사회주의 발전의 전과정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하려 한다.²⁵⁾

먼저, 페레스트로이카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理想目標은 구체적인 수준으로서는 '소비에트체제의 발전'이며, 포괄적으로는 '사회주의의 강화'에 두고 있다. 이러한 점은 페레스트로이카의 목적이 소비에트 사회를 새로운 개척지로 이동시켜 한 단계 더 높은 차원으로 발전시키는 데 있다고 하는 고르바초프가 설계하고 있는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청사진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고르바초프는 페레스트로이카의 성공은 소비에트사회의 전반적인 발전과 사회주의의 실질적인 승리를 의미한다고 보고 그 구체적인 성과를 다음 몇 가지로 구체화하고 있다.

(1) 사회주의는 과학기술수준을 고양시키는 역사적인 위업을 달성시킬 수 있으며, 소비에트국민의 노력, 지성, 능력, 양심, 타국민들에 대한 소비에트국민의 책임을 자각함으로써 민주주의적 방법을 통하여 최대한의 사회적이고 도덕적인 효과를 높이면서 과학기술의 진보에 공헌할 수 있으며,

(2) 서방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지배계급의 편협성과 이기주의를 폭로하며,

25) 조정남, 전계논문, pp. 21~22. 참조.

(3) 개발도상국들에게 제국주의의 신식민지 정책에 타협하지 않고도 사회·경제의 근대화를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할 수 있으며,

(4) 어떤 사회체제가 인간의 행복을 추구하는 데 적합한 것인가 하는 역사적인 논쟁에 중지부를 찍게 될 것이며, 공산주의 혁명이라는 극단적인 조건에 의해 형성된 소비에트는 매력 있는 국가로 변화, 사회주의 사회의 본질적인 우수성이 구체화될 수 있어 사회주의 이념의 새로운 전개가 약속된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고르바초프는 페레스트로이카를 통하여 추구하고 있는 當面目標을 다음과 같이 광범위하게 제시하고 있다.²⁶⁾

(1) 개혁은 현재 소련사회의 전반적인 사회·경제적 진보의 가속화를 위한 제도의 창출을 의미하며, 새롭고 합리적인 제도개혁을 통해 전반적인 침체구조를 탈피하고 시대적인 요청이기도 한 과학기술혁명의 성공적인 이행과 이를 통한 사회주의의 가능성을 보다 제고시켜야 하며,

(2) 개혁은 대중의 활기 있는 창의성에 의거, 민주주의와 사회주의적 자치의 전반적인 발전과 주도권, 자주적 행동의 장려, 규율과 질서의 강화, 사회생활 전역에서의 공개성, 비판과 자기비판을 확대시키는 것이며, 또한 개인의 가치와 덕망을 더욱 높이 평가해야 하는 것이며,

(3) 개혁은 소련 경제발전을 가속화하는 데 역점이 모아져야 하는 것으로, 국민경제 관리에 있어서 레닌식의 민주집중제 원칙²⁷⁾을 재개, 활성화시키며, 여러 가지의 경제정책, 경영·관리정책의 대대적인 혁신과 사회주의적 기업심을 장려하는 것이며,

(4) 개혁은 확고하게 과학으로 선회하는 것을 의미하며, 최상의 성과를 달성하려

26) 고르바초프, 러시아연구회 편역, 「혁명은 시작되고 있다」(서울:백의, 1988), pp. 173~174.

27) 레닌은 참여와 경제력 향상을 조화시킬 수 있다는 소비에트형 국가행정의 운영을 주장하였다. 이의 특징은 엄격한 공동참여적 의사결정에 따른 국가로부터 지배를 벗어나는 것이다. 이에 상응하는 생산과 분배의 결정조정은 소유와 관리를 구별, 자본주의 관리방식을 보존하되 노동자들로 구성되는 위원회의 통제를 반도록 하였다.

는 목표 아래 과학과 실천 간의 실무적인 연계성을 확보하고, 확고한 과학적 기반 위에서 어떤 업무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하는 것이며, 그 인력의 증대를 통해 변혁과정에 그들을 적극적으로 참여시키기 위해 배려하는 것이며,

(5) 개혁은 사회분야를 우선적으로 발전시켜 보다 좋은 생활이나 노동조건, 휴가나 레크레이션교육, 의료를 바라는 소비에트국민의 요구에 부응, 문화적·정신적 풍요와 각 개인 및 사회전체의 문화향상을 이룩하게 하는 것이며,

(6) 개혁은 사회주의 도덕의 왜곡상태로부터 정신적으로 사회를 구출하고 사회정의의 원칙을 지속적으로 실현시키는 것, 즉 말과 행동·권리와 의무를 통합시켜 양질의 노동을 고양하며 임금 균등제의 경향과 소비만능의식을 극복하게 하는 것이라는 것이다.

고르바초프는 결국 페레스트로이카의 궁극적 목적은 국가생활을 전면적으로 철저히 쇄신하고, 사회주의내에 가장 현대적인 형태의 사회조직을 공급하며, 경제·사회·정치·도덕적으로 매우 중요한 국면에서 체제의 인본주의적 특성을 완전히 발현해야 하는 것이라고 역설하고 있는 것이다.

요컨대, 페레스트로이카가 지향하는 이상목표는 소비에트체제의 발전을 통한 '社會主義의 強化'에 있으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당면목표는 대체로 '社會의 民主化'와 '經濟改革의 擴充'이라고 단순화할 수 있다.

이 두 가지의 당면목표는 페레스트로이카의 현실적 목표이자 실질적 내용으로 인식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3. 페레스트로이카의 指導原則

페레스트로이카는 세 가지 지도원칙을 갖고 있다.

즉, 첫째는 글라스노스트 원칙, 둘째는 社會主義的 民主主義 原則, 셋째는 平和的 競争의 原則이다.

그것들은 차례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글라스노스트原則

고르바초프는 그가 추진하는 사회환경의 민주화와 사회경제적인 변화는 글라스노

스트의 확대에 의해 크게 가속화될 수 있다고 전제한다. 그는 사회분위기를 건전하게 하면서 글라스노스트를 더욱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는 국가건설의 모든 부분에서 활동을 개선하기 위한 강력한 지렛대이며, 전인민적 감독의 효과적인 형태라고 역설한다.²⁸⁾ 또한 그는 사회의 공개비판 없이는 소련의 민주화가 이룩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²⁹⁾

글라스노스트(Гласность · Glasnost)는 정보의 개방을 의미한다. 이는 즉 검열이 없이 자유로운 언론과 극소수의 관리만이 입수 가능하던 시사·사회통계의 일반적 공개를 뜻한다.³⁰⁾

페레스트로이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글라스노스트가 필수불가결한 선행조건으로 대두되는데, 그것은 바로 글라스노스트로 인해 우리가 소련개혁의 필요성을 비로소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³¹⁾

소련에서 글라스노스트를 제고하는 조건은 다음과 같다.³²⁾

(1) 노동집단의 구성원들에게 행정기관으로부터의 도덕적, 물질적 독립을 보장하고, 그들의 비판적 발언이 불려 일으킬지도 모르는 당국의 조치로부터 그들을 보호하는 일,

(2) 사람들이 세부에 걸쳐 모든 것을 알고 있는 노동집단 속에서 지도자와 사람들과의 접촉의 중단이나 복잡화, 부하가 비굴한 태도로 부득이하게 대하지 않을 수 없는 상사의 거만한 태도를 지양하는 일,

(3) 뚜렷이 제시된 정보가 생산활동의 자극과 지표에 관한 명확하게 작성될 체계와 결부되는 것,

28) 고르바초프, 러시아연구회편역, 전계서, p. 74.

29) 고르바초프, “페레스트로이카와 당간부정책에 관하여”, 강인덕 편, 「페레스트로이카」, p. 179.

30) 강우란, 전계논문, p. 236.

31) 상계논문, p. 236.

32) 안드류 시첵코, “글라스노스치”, 강인덕 편, 상계서, pp. 134~141. 참조.

(4) 상황에 관한 완전한 정보를 노동집단에 준다는 것,

(5) 위원회이든 인민통제 그룹이든지 간에 그 활동성격은 누가 통제기관으로 선출되는가 하는 점에 크게 좌우되므로, 노동집단에의 정보전달에 관해서 매번 구체적인 인물에게 개인 책임을 지우는 원칙을 전면적으로 정착시켜나가는 것,

(6) 스스로의 권리를 이용하는 능력,

(7) 선거제도와 인재의 등용, 확대체계 전체의 개선 등이다.

“글라스노스트는 사회의 정상적 상태이다. 만약 그것이 없다면 우리는 아무 것도 얻을 수 없다. 사회의 건전성, 도덕적 분위기는 직접 우리의 공동사업의 운명에 대한 배려로 일관된 글라스노스트 및 비판과 자기비판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다.

민주주의·글라스노스트·비판·자기비판을 포함하는 이 분위기의 보전, 건전한 판단, 책임 있는 토의 모두는 사회가 존재하며 기능하는 기준이 되어야 한다. … 글라스노스트가 없으면 확실한 근거에 입각한 자발성·자주성·자주관리도 불가능하다.”³³⁾

결국 고르바초프는 글라스노스트는 오늘날 사회의 정상적이고 바람직한 정신적·도덕적 환경의 명백한 보기로써, 그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과거와 현재에 무엇이 일어나고 있으며, 지도층이 무엇에 정력을 쏟고 무엇을 장려하고 있는가를 명확히 알 수 있게 하며, 이러한 전반적인 정치과정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민중은 의식적으로 페레스트로이카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고 본다.

이처럼 글라스노스트가 사회주의 발전에 의미를 갖는 것은 단순히 사람들에게 사회전반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주기 때문만이 아니라 글라스노스트가 모든 정부기관의 활동을 감시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며 또 단점을 바로 잡는 강력한 장치일 수 있기 때문이다.

소비에트사회에서 이성과 양심이 소극성과 무관심을 극복하고 이에 따른 도덕성의 향상에 대해 이제는 사실과 정부정책 발표 간의 단성적인 불일치를 없애야 할 필요성이 나타났으며 이 불일치의 해소는 사람들에게 만족감을 부여할 수 있기 때문에

33) 아나톨리 부텐코, “글라스노스치에는 한계가 있는가”, 강인덕 편, 전계서,

p. 237. 재인용.

소련에서 진행중인 사회주의 혁명의 중심적인 역할을 바로 글라스노스트가 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언론을 비롯한 광범위한 대중매체에서 비판과 자기비판을 내용으로 하는 글라스노스트원칙이 요청되고 또 페레스트로이카의 모든 영역에서 그 필요성이 강조될 수밖에 없는 것은 글라스노스트 없이는 어떠한 근본적인 변화는 물론이고 민주주의 발전이 기대될 수 없고, 민주주의 없이는 오늘날의 사회주의가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글라스노스트와 민주주의 없이는 사회주의의 모든 가능성과 우위성을 표면화시켜 활용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고르바초프는 강조하는 것이다.

현재 많은 소련 지식인들은 소련사회의 비합리성을 깨어 대중 앞에 공개하기에 바쁘며 이는 페레스트로이카를 간접적으로 돕고 있다. 그러나 글라스노스트가 성취하고자 하는 것은 비판적이지만 건설적인 관점의 수용이지, 그 경계선을 넘어가는 반체제적, 반동적 움직임의 용인은 결코 아니다.

이리하여 소련의 구조적 개편의 필요성은 주지되기 시작하였고, 소유제의 개혁이 아닌 점을 제외하고는 어느 면에서 보나 가히 '혁명적'인 페레스트로이카는 그 실천의 바탕을 마련하게 된 것이다.

나. 社會主義的 民主主義 原則

'社會主義的 民主主義'라는 개념은 사회주의 이론에서는 꽤 오래된 개념일 수 있으나 소련 공산당의 경우는 1961년에 진행된 그들의 「마르크스-레닌주의의 기초」에서 이를 분명한 하나의 통치이념적인 개념으로 파악, 이에 대한 분명한 개념정의를 시도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社會主義的 民主主義'는 '자본주의로부터 사회주의의 이행단계인 프롤레타리아 민주주의에서 파생된 개념'이며, 또한 이는 '인민주권의 보다 새롭고 높은 역사적 형태'로 규정, 이를 프롤레타리아 독재의 보다 발전된 개념으로 파악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사회주의적 민주주의'는 구체적으로 화목한 사회를 전제로 하며, 국가기능의 분화를 필수적으로 수반하고, 노동자들의 정치·사회적 권리의 확대 등과 같은 속성을 내포하고 있는 민주주의의 개념으로도 이를 정의하고

있다.³⁴⁾

이렇게 일반적으로 정의되고 있는 ‘社會主義的 民主主義’의 개념이 소련의 통치이념체계의 구성개념으로 활용되기 시작한 것도 브레즈네프시기였다고 볼 수 있으나, 당시의 이에 대한 언급은 하나의 개별정책적인 수준을 뛰어넘지 못하는 강조로 볼 수 있다.

고르바초프가 개혁정치 추진과정에서 나타내 보이고 있는 ‘사회주의적 민주주의’에 대한 강조는 소련의 역대 통치이념조작 과정에서 이에 대해 보였던 관심과의 강도와 의미에서 크게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고 하겠다.³⁵⁾

고르바초프는 88년 1월의 당 중앙위원회 총회에서의 보고를 통해 소련사회의 개혁은 민주주의에 의해서만, 또한 민주주의에 대한 결과로서만 실현될 수 있으며, 또한 민주주의를 통한 개혁의 실현만이 가장 강력한 창조력을 발휘시킬 수 있다고 전제, 민주주의와 사회주의의 결합으로서의 ‘社會主義的 民主主義’의 의미를 설정하고 이의 심화 발전이 소련공산당이 당면한 급박한 과제라고 강조하면서 이의 구체적인 실현 방안들을 장황하게 나열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이 보고에서 ‘社會主義的 民主主義’는 소비에트사회의 전반적인 발전과 民主化를 위한 기본적인 전제이며, 현재 각 부문별로 이뤄지고 있는 제반 개혁은 이 원칙에 입각하여 전개하여야 하며 또 궁극적으로는 개별 분야에서의 개혁의 결과는 소비에트사회에서의 ‘社會主義的 民主主義’를 정착, 발전시키는 가장 중요한 전제이기도 하다는 분명한 언명에서 그의 의지를 쉽게 찾을 수 있다.³⁶⁾

고르바초프는 페레스트로이카는 사회주의적 민주주의의 가일층의 심화와 발전을 최우선의 과제로 제기한다고 하면서 사회의 민주화야말로 페레스트로이카의 핵심이며 그 성공여부와 사회주의 전체의 미래가 사회의 민주화의 진전에 달려 있다고 강

34) 조정남, “사회주의 체제의 변화”, 조정남 외 3인, 「사회주의체제 비교론」(서울: 형설출판사, 1988), pp. 294~297. 참조.

35) 조정남, “고르바초프의 改革과 政治理念”, 「국민윤리연구」, 제26호, 한국국민윤리학회 (1988. 7), p. 200.

36) 상계논문, p. 201.

조한다.

그는 페레스트로이카는 민주주의를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하면서 또한 인간적인 요소를 다음과 같이 중요시한다.

“인간적인 요소를 강화함으로써 사회주의적 잠재력을 실현시키는 것이 우리의 과업이기 때문에 경제적 기재와 관리의 개혁, 집단작업의 역할을 증진시키는 개혁을 포함한 민주주의가 유일한 방법인 것이다. 이것은 지적 영역과 공공의식, 그리고 활동적 사회정책에 지대한 관심을 보여왔던 사회주의적 민주주의의 발전을 강화하기 때문이다. 그럼으로써 우리는 인간적 요소를 고무하기를 원한다.”³⁷⁾

고르바초프가 늘 역설하는 사회주의적 민주주의는 임의성, 무책임, 무정부 상태와는 아무 관계가 없으며, 참된 민주주의는 개인의 정치적, 사회적 권리를 수호하면서 개인에 봉사할 뿐만 아니라 개별집단과 사회전체에 봉사하며 그 이익을 수호하는 것이다. 또한 소비에트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의 민주화는 금후 노동자 이니셔티브의 발전, 사회주의체제의 모든 잠재력의 개화를 결정하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하는 것이다.

“전진하기 위해, 사회 내에서 적법성이 강화되고 공정성이 승리하기 위해, 인간이 자유롭게 살고 알차게 말할 수 있는 윤리적 분위기를 확립하기 위해 민주화는 필요한 것이다.”³⁸⁾

이 때의 ‘민주화’란 물론 복수정당제, 언론, 출판, 집회, 결사, 시위의 자유를 법적으로 보장하는 서구적 ‘자유민주주의’ 개념과는 다른 것이다.

소련의 학자 포도르 브르라츠키 박사도 “민주화를 진행시키며, 정신적 분야의 제 과정을 발전시키며, 사회주의 및 일반인의 가치를 확립시키는 것—이것이 페레스트로이카를 실현하는 주요한 수단, 차라리 유일한 수단이기도 하다.”³⁹⁾라고 사회주의적 민주주의를 강조하고 있다.

고르바초프는 또한 페레스트로이카가 일반적인 정치적, 법률적 문화 즉 사회주의

37) 고르바초프, 하용출 역, 전계서, p. 47.

38) 고르바초프, 러시아연구회 편역, 전계서, p. 195.

39) 포도르 브르라츠키, “민주주의를 배운다”, 강인덕 편, 전계서, p. 232.

적 민주주의 문화의 문제를 새롭게 제기한다고 하면서 사회주의적 민주주의의 진정한 문화는 명령식, 억압적 방식과 조직의 모호성, 공허한 말만의 임무수행 방식을 거부한다고 본다.

이 모든 것은 사회주의와는 무관한 것이며, 민주주의가 확대되고 심화되면 될수록 사회주의적 적법성과 법질서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하고 조직성과 의식적 규율이 더욱 필요하다는 것이다.

결국 고르바초프의 페레스트로이카의 본질은 ‘사회주의와 민주주의의 통일’에 있기 때문에 이를 위해 이론과 실천 양면에서의 사회주의적 민주주의 원칙의 견지는 필수적이다. 즉 고르바초프는 사회주의는 민주주의와의 결합을 통해서만 완성을 이룰 수 있으며, 또한 민주주의의 발전은 사회주의의 터전을 요청한다는 논리에서 이의 통일을 통해서만 소비에트체제의 발전과 사회주의의 발전이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다.

다. 平和的 競争의 原則

고르바초프는 그의 외교노선과 정책의 특징으로 비교적 새로운 개념의 ‘평화공존’ 테마를 내세우고 있다.⁴⁰⁾

그것은 현 국제시스템을 전통적인 양극체제 구조로 보고 있지 않다는 점과 NATO를 중심으로 한 서방동맹체제의 내분을 직시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과거 어느 때보다 대외적 환경을 소련의 국내 경제 개발 추구를 위해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보고 있는 점을 들 수 있다.

“소련은 확고하게 평화와 평화적 상호공존이라는 레닌주의적 정책을 추구할 것임을 다시 한번 선언하는 바 그것은 우리의 사회체제, 윤리, 세계적 전망에 의해 결정되고 있다. 우리는 국제법에 대한 진정한 존중에 기반한 안정적인, 올바른 開花된 국가간 관계에 찬성한다. 그러나 국제관계는 제국주의자들이 두 개의 사회체제간의 경쟁을 군사적 수단에 의해 해결하려는 시도를 포기할 때에만, 정상적인 협력관계로 들어설 수 있다는 것이 분명히 지적되어야 한다.”⁴¹⁾

40) 김동성, “고르바초프의 평화공세와 서방진영”, 「외교」, 제6호, 한국외교협회 (1988.7), p. 33.

41) 고르바초프, 러시아연구회 편역, 전게서, p. 32.

고르바초프는 이처럼 국제협력의 전면적 개선과 다양화, 우방사회주의 국가들과의 종합적 접촉을 발전시키는 것, 정치·경제·이데올로기적 방위 및 그 외 분야에서 그들의 밀접한 협력을 확보하는 것, 그리고 거대한 공동체에의 참석자들의 국가적, 국제적 이익들이 조직적으로 결합되어야 한다는 것 등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그는 중국을 포함한 사회주의 국가,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국가, 서유럽 국가, 일본 및 미국과의 대대적인 다방면의 상호호혜협력을 모색하고자 하며, 무기경쟁을 종식시킬 것을 다음과 같이 역설한다.

“소련으로서는 무기경쟁을 종식시키고 군축의 발전을 달성시키기 위한 실제적이고 서로 받아들일 수 있는 합의에 도달하기 위해서 제네바에서 끈기 있게 노력할 것이다. 오늘날, 이전과는 달리 지구의 평화를 위한, 그리고 보다 나은 내일을 위한 정치적 의지를 우리는 필요로 한다.”⁴²⁾

이상과 같은 고르바초프의 페레스트로이카는 국제관계에 있어서의 대대적인 개방과 협력을 강조하고 있으며, 국제관계를 지배해왔던 전쟁과 평화에 대한 재검토를 통해 어떠한 국제적인 위기도 평화적인 수단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평화공존의 바탕을 전제로 깔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소련의 평화공존정책은 1960년대의 급격히 신장된 군사력을 중심으로 한 공업화의 배경에서 형성된 체제경쟁의 원리라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페레스트로이카가 국제관계에서 비폭력적 경쟁을 호소하는 것은 소련의 체제능력을 대내외적으로 과시하면서 체제경쟁의 범위를 한층 넓히고 그 방법을 다양하게 모색하려는 의도로 해석할 수 있다. 이는 소련이 페레스트로이카의 대외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계속하여 사회주의국가의 단결과 사회주의의 궁극적인 승리를 강조하면서도 미·소간의 협력과 공존, 핵전쟁의 포기, 비폭력의 원칙들을 여기에 공존시키고 있는 것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⁴³⁾

따라서, 글라스노스트원칙, 社會主義的 民主主義 原則, 平和的 競爭의 원칙 등 세

42) 전제서, p. 38.

43) 조정남, “사회주의체제의 개혁구도”, 「국민윤리연구」, 제27호, 한국국민윤리학회 (1988.12), pp. 167~168.

指導原則은 고르바초프의 페레스트로이카를 이해하는 데 큰 전제조건이 된다.
즉, 이의 원칙에 따라 개혁의 모습들이 구체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Ⅳ. 페레스트로이카의 推進現況

1. 이데올로기의 再整備

고르바초프의 통치이데올로기에 대한 견해는 전반적으로 그들의 사회주의 이론이 시대에 뒤져 있는 낡은 것이라는 지적과 사회주의적 민주주의에 대한 강조로 단순화시킬 수 있다.

그는 “새로운 사고는 오늘날의 사회주의의 과제들을 이해하기 위한, 어쩔 수 없도록 낡아 빠진 교조나 형식주의를 극복하기 위한 열쇠를 쥐어준다.”⁴⁴⁾고 강조함으로써 모든 사회주의적 생산관계와 정치형태의 사회주의 요소에 의문을 제기한다.

즉, 그것은 과거 수십년 소련경제발전의 분석을 통해 사회주의적 생산관계의 발전의 복잡성과 생산관계의 재조정은 개인적, 조직적 이해관계가 얽혀 그 변경이 용이치 않음이 판명되었으며, 공허한 共產主義 실현을 내세웠던 후르시초프의 ‘全人民國家’개념⁴⁵⁾이나 브레즈네프시대의 ‘成熟된 社會主義’개념⁴⁶⁾하의 현실과 이데올로기

44) 강인덕편, 전계서, p. 59.

45) 소련 헌법(77. 10. 7)은 그 제1조에서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은 노동자·농민·인텔리겐차와 이 국가의 모든 민족과 민족체의 근로자의 의지와 이익을 표현하는 사회주의적 전인민국가이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문은 1961년에 제정된 당강령의 규정을 이어 받은 것으로써 소련에서의 성숙한 사회주의적 사회관계의 형성, 성숙된 사회주의 사회의 건설 종료에 의해 소련은 프롤레타리아 집권으로부터 ‘전인민국가’로 발전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인민국가’의 주요임무는 ① 공산주의의 물질적·기술적 기초의 창조, ② 사회주의적 사회관계의 완성과 공산주의적 관계로의 변혁, ③ 공산주의 사회에 합당한 인간의 양성, ④ 근로자의 물질적·문화적 생활수준의 향상, ⑤ 국가의 안전보장, 평화의 강화를 비롯한 국제협력발전의 촉진등이다. 「共產主義事典」(서울: 극동문화간, 1983), p. 590.

46) 소련 헌법 전문에 나와 있는 이 용어는 1971년 3월 제24차 당대회 때 브레즈네프

의 갭을 방지했던 것에 대한 정면도전을 의미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나아가 그것은 사회주의 사회의 모순의 성격을 비적대적 모순으로 규정하여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적대적 모순과 대비시켰던 이론적 틀에서 탈피하여 사회주의 이행 과정에서의 모순의 심각성을 간접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된다.

그러나 페레스트로이카는 왜곡된 사회의 교정, 다시 말하면 스탈린주의의 청산과 레닌리즘으로의 회귀를 뜻하는 것이지, 결코 사회주의를 포기하거나 자본주의 사회로 전환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레닌은 그의 혁명성에 기인하여 누누이 당의 과오는 솔직히 인정되고 시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공개적 자체 성찰을 역설하였다.

또한 레닌은 볼셰비키 쿠데타를 주창하면서 볼셰비키정권이 지향할 사회주의 혁명의 목표들 중의 하나로서 소비에트 민주주의를 내세웠다.⁴⁷⁾

그리하여 그는 대도시를 중심으로 하여 민중 스스로에 의해 자발적으로 형성된 소비에트를 볼셰비키 집권 후에 전국적으로 확대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하였다. 즉, 비록 볼셰비키가 쿠데타로 집권한다 하더라도 그 정권 하에서 소비에트의 전국적 확대를 통해 소비에트 민중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다. 이는 레닌이 처음부터 공산당에 의한 일당독재를 상정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한다.⁴⁸⁾

그러나 레닌은 얼마 안가서 소비에트 민주주의를 위한 민중의 참여 의식에 의문을 제기하였다. 민중의 낮은 의식수준 때문에 소비에트 민주주의의 이상은 현단계에서는 실천될 수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러면서 그는 민중의 의식수준이 높아지는 대

보고에서 사용된 후 소련과 동유럽 사회주의 제국에서 사회주의의 특정한 발전 단계를 나타내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즉 광의의 공산주의 사회는 ① 자본주의로부터 사회주의로 이행하는 과도기(프로레타리아 집권기) ② 성숙된 사회주의 건설기(프로레타리아 집권으로부터 전인민 국가로의 이행기) ③ 성숙된 사회주의(전인민의 국가) ④ 공산주의(국가의 사멸기)의 4단계로 구분된다. 이 같은 구분을 적용해서 자국의 발전단계를 규정하고 있다. 「共産主義 辭典」, 상계서, p. 287.

47) 김부기, “레닌의 민주주의와 고르바초프의 민주화 개혁”, 한국슬라브학회 편, 「러시아 혁명기의 사회와 문화」(서울: 민음사, 1988), p. 56.

48) 상계논문, p. 57.

로 소비에트 민주주의 이상을 실천에 옮길 것을 천명하였다.

고르바초프는 이처럼 레닌의 공개성과 민주주의의 목표를 구체화하는 첫걸음을 그의 개혁을 통해 내딛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고르바초프의 개혁노력도 社會主義의 틀 내에서 이뤄지고 있음은 다음과 같은 그의 말에서 이해될 수 있다.

“사회주의가 발전한다는 것은…사회주의와 그 이론적 규범 속에 고유한 것을 더욱 발전시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우리는 사회주의를 포기하기 보다는 사회주의의 발전을 위하여 계속 전진할 것이다.”⁴⁹⁾

공산주의 정치체제는 그것의 성립과정에서부터 대대적인 변화의 논리를 자기들의 것으로 하고 있고 이러한 논리는 체제유지기에 들어와서도 멈추지 않고 있다. 그러나 체제 성립 이후 공산권에서 나타내 보이고 있는 제도 내지는 이데올로기적인 변화는 그들 체제가 지니고 있는 고유성 때문에 여전히 의도적인 변화, 즉 위에서부터 지휘하는 변화의 모습을 감출 수 없으며 그렇기 때문에 변화의 수준도 한정적인 것일 수 밖에 없는 듯하다.⁵⁰⁾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현재의 소련 정치에 있어서의 이데올로기적 변화는 그들 사회주의체제의 발전을 위해 불가피할 수밖에 없는 ‘관심영역의 확대’ 내지는 ‘체제운영의 유연성의 증대’ 이상의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려우며, 따라서 고르바초프의 개혁 정치의 전개 과정에서 이 두 가지 이상의 의미를 어떠한 이데올로기 조작을 통하여 논리적인 뒷받침을 이룰 수 있는가의 문제가 매우 절박하고 실제적인 것으로 대두된다. 그러나 현재 나타나고 있는 소련에서의 변화를 이데올로기적으로 합리화시켜 줄 수 있는 논리의 개발은 아직도 구체화되어 있지 못한 것이 사실이며, 이는 지금의 소련에서 뿐만 아니라 체제유지기에 접어든 모든 사회주의 국가들이 거의 공통적으로 당면할 수밖에 없는 이념과 현실 간에 나타나는 갈등의 모습으로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한 것이다.⁵¹⁾

49) 고르바초프, 하용출 역, 전제서, p. 53.

50) 조정남, 전제논문, p. 203.

51) 상계논문, p. 203.

2. 社會主義的 民主化

소련에서의 왜곡된 社會主義가 낳은 政治的 문제는 스탈린식의 철저한 계획경제와 통제경제, 중앙집권적 정책의 수립과 집행이 낳은 관료화와 이에 따른 사회기능의 경직화, 정보의 순환과 수렴의 어려움, 국민의 원자화가 초래한 정치적 무관심 등을 들 수 있다.

페레스트로이카는 이러한 경직화된 관료제도, 특히 퇴영과 쇠퇴를 상징하는 브레즈네프 시대의 수구파를 견제하면서, 명령적 수직조직을 협력적 수평조직으로 개편해 나가는 것을 골간으로 하고 있다.

고르바초프는 이의 실시를 위해 당내의 인사개혁과 民主化의 확대를 꾀하고 있다.

우선 人事改革을 보면, 고르바초프가 黨書記長으로 등장한 이래 가장 먼저 인사개혁을 통한 체제의 쇄신을 단행하려 하였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당서기국의 축소와 중앙위원회의 위원 50%의 경질, 군당위원장급 70%의 교체, 정치국원의 보강 등 중앙의 정치행정기구에 대한 대대적인 인사개편은 물론이고, 지방의 각급 당, 정 기구에 대한 인사혁신은 눈에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그의 인사혁신의 주요한 특징은 새로 등용된 사람들의 연령이 매우 젊어졌다는 점과, 이들은 바로 개혁을 구체화할 수 있는 비스탈린적 인물이라는 점이다.

사실상 제27차 당대회 이후의 정치국원은 평균연령 64.3세, 즉 제26차 당대회(1981년 2월)직후의 평균연령 69세에 비하면 4.7세나 젊어졌으며, 書記의 평균연령도 65.3세에서 60.2세로 내려갔다.⁵²⁾

이러한 고르바초프의 대대적인 인사쇄신은 “...페레스트로이카에 대한 태도, 그 실현에 따른 실제적 행동은 간부들을 평가하는 데 결정적인 요건이 된다. ...무엇보다도 결함, 구습, 무관심, 소극성과 비타협, 진보성, 그리고 진보적인 모든 것의 신봉이 그러한 자질이다.”⁵³⁾ 라는 그의 말에서 이해될 수 있다.

52) 양호민, “고르바초프 지도체제의 확립과 정책노선”, 『북한학보』, 제10집 (1986), p. 41.

53) 고르바초프, 러시아연구회편역, 전계서, p. 210.

다음으로 민주화의 확대를 보면, 그의 가장 대표적인 수단은 복수후보와 비밀투표를 통한 아래로부터의 혁명이라는 선거제도의 개혁을 들 수 있다.

1988년 11월말의 연방최고회의에서 통과된 헌법개정안과 선거법 개정안은 정치개혁의 틀을 마련한 것이라 볼 수 있다.

개정법안의 가장 큰 특색은 현재의 '최고회의'를 '인민대표회의'로 대체하는 것과 그 의장에게 미국식의 대통령 권한을 부여, 국정운영을 당 위주가 아닌 행정부 위주로 개편한 것이다. 물론 그 자리에는 고르바초프가 없었다.

소비에트 대표는 임기 5년으로 제한되었고, 최고 인민회의는 임기 5년 중임 허용의 최고회의 의장을 선출토록 함으로써 고르바초프는 사회적요구와 당의 입장을 조화하려는 전략을 보여주고 있다.

신선거법은 모든 선거에서의 복수후보제 도입과 비밀 국민투표제의 실시를 골자로 하고 있다.

최근(1989. 3. 26)에 실시되었던 소련인민대표회의 선거는 고르바초프의 개혁을 달성하려는 불세비키 혁명 사상 역사적인 변화였다.⁵⁴⁾

전 모스크바 시장 제1서기 보리스 옐친이 당의 공식후보를 제치고 압도적으로 당선된 일, 레닌그라드 당 제1서기 아나톨리 게라시모프의 낙선, 일부 민족주의 후보들의 진출, 그리고 선거과정에서 나타난 열띤 TV 토론 등 외양 자체만으로도 소련 정치의 큰 변혁을 읽을 수 있는 선거였다.

그러나 더 중요한 대목은 복수후보제와 표의 等價性, 비밀 자유투표의 실시였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번의 소련 선거가 자유세계의 선거제도와 같은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공산당 일색으로부터 공산당이 아닌 후보가 당선되고 선거과정에서 당의 노선을 비판하는 소리가 허용되기는 하였으나 우리가 경험해온 선거와는 아직도 거리가 멀다.

소련 인민대표회의의 정원 2천2백50명 중에 7백50명은 상당수가 사실상 여전히 임명제이시고 복수후보 및 자유비밀선거를 통해 선출되는 대의원수는 민족선거구 7백50명을 포함, 1천5백명이다. 그나마 그 중 3백 80여명은 경쟁 없이 당선되었고 당

54) 동아일보, 1988년 3월 29일.

선자의 약 80%가 공산당원이다.

또한 민주화의 확대로 전체주의를 탈피하려는 고르바초프의 의도도 '소비에트 민주주의' 즉 인민주권이 국가권력의 주체가 되는 레닌과 마르크스의 인민민주주의 이상을 지금부터 실현해 보겠다는 레닌주의로의 회귀인 것이다. 그래서 낮았던 국민의 의식수준이 이제 노동자의 표와 등가를 이룰만큼 성장했다는 전제로 1919년부터 시행되어온 공산당 교육독재도 종지부를 찍게 된 것이라 할 수 있다.

고르바초프는 또한 민주화의 일환으로 인권정책을 펴고 있다.

1987년 12월 23일 반체제 물리학자 사하로프 박사의 유배 생활 해제에서 상징적으로 나타나는 바와 같은 구체제 아래서 박해받던 많은 사람들에게 상당히 대규모적인 석방이나 복권조치를 취함으로써 그의 민주의지를 나타내 보이려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여러 분야에서 비스탈린 노선에 입각한 스탈린에 대한 새로운 비판과 그 시대의 반대파(트로츠키, 부하린 등)들에 대한 재평가가 매우 활발하게 전개됨으로써 비스탈린화 정책을 취하고 있다.

결국, 고르바초프의 社會主義的 民主化 노력, 다시 말하면 政治改革의 본질은 비대해진 중앙조직의 정비, 비생산적인 중간계층의 약화, 하부조직의 기능 강화로 요약될 수 있다. 즉 행정적으로 하부조직인 소비에트의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지방행정에 시민 등의 참여를 확대하고 중앙은 정책집행 보다 정책의 수립에 역점을 두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3. 社會의 活性化

베레스트로이카는 능력과 공헌도에 따른 분배를 무시한 과대평균주의와 극단적인 국가, 사회, 또는 타인에 대한 의존적 태도와 미래를 지향치 않는 소비우선주의를 타파하려는 것이다.

사회부문에서 볼 때, 사회의 국가에의 몰입은 궁극적으로 사회의 정치적 역할의 상실을 의미한다. 지금까지 소련에서의 대중은 참여가 제한되어 정치적 주도력을 행사치 못하고 정권에 대한 타성적 복종을 강요당하게 되었다. 개인의 창의성이 억제된 채 사회조직의 독자성 결핍은 관료지배에의 연속을 가져왔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대중들은 수평적 연계를 상실하고 주어진 상황에서 자기이익을 극대화하는 체제의존적 사고에 빠지게 되는 사회주의형 정치소외를 야기하였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왜곡된 사회주의가 낳은 反社會的 태도인 것이다. 고르바초프는 이에 대해 모든 것이 의에서 결정되어 내려온다고 생각하는 타성이 나타나 개인이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지는 습관을 파괴했다고 주장한다.

이는 곧 모든 사람들이 체제순응적 자세를 취함으로써 각자 체제 및 상황의 주어진 제약 속에서 자기의 이익확보를 꾀하는 원자화된 인간을 창출하였으며 대중들은 관료주의 하에서 막연한 추종의 습관에 길들여지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또한 과대평균주의가 야기한 가장 중요한 문제는 개인이익의 무시와 전체이익에의 몰입에 따른 개인의 창조성의 파괴 및 극단적인 배분적 정의가 낳은 집단주의 및 국가이익 우선주의가 초래한 병폐이다.

고르바초프는 이에 대해 사회주의에서 국가·사회이익과 개인이익과의 조정에는 고정된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고 상황에 따라 그 배합이 달라져야 한다고 보면서 현실에서 사회주의의 체제보전을 위해 개인이익의 장려가 불가피하다는 것을 주장한다. 즉 그는 전통적인 절대배분적 평등개념에서 기회의 균등한 보장과 능력에 따른 분배라는 분화된 평등개념의 설정을 강조한 것이다.

페레스트로이카의 사회부문에서 괄목할만한 것은 글라스노스트의 확대라고 볼 수 있다. 초기 글라스노스트는 무기력한 사회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는 기폭제의 역할과 인텔리계층의 지지를 통해 페레스트로이카의 이론화의 기반을 확보하는 데 그 목적을 두었다. 현재는 페레스트로이카의 집행을 위해 제2단계에 돌입하여 체제와 과거 역사의 비판에서 대중의 정치적 협조 획득을 위한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글라스노스트는 소련사회에서 오랫동안 무시되어온 많은 불만들을 표면화 시킴으로써 자칫 고르바초프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개혁정책 자체를 그르칠 지도 모른다는 도전을 가져다주고 있다. 이로 인해 특히 고르바초프를 괴롭히고 있는 것은 1백여개가 넘는 다민족으로 이루어진 이 나라의 민족분규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는 사실이다.⁵⁵⁾

55) 동아일보, 1989년 3월 11일.

소련내 민족주의가 최초로 표면화된 것은 1988년 초 발틱해 연안의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등 3개국에서였다. 소련보다 스칸디나비아에 더 큰 동질감을 보여온 이들 3개국은 그간 상상할 수도 없었던 대규모시위를 전개, 비러시아 민족들 간에 민족적 자부심을 일깨웠다. 또한 이는 곧 문화적 차이로 갈등을 거듭해온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공화국, 회교공화국인 타지크, 투르크메니아, 우즈베크, 카자흐 등으로 거세게 확산되어 갔으며 급기야는 소련내 공화국 중 가장 인구가 많고 자원이 풍부한 우크라이나와 벨러시아에서까지 선봉을 일으켜 당지도부를 벼랑 끝으로 몰아세웠던 것이다.

고르바초프도 이에 대한 사태의 심각성을 간접 시인하면서 아래로부터의 개혁인 글라스노스트가 광범위한 소련내의 민주화로 번져가고 있는 현실에 대해 우려를 표시함으로써 소련공산당내에 팽배한 위기의식의 일단을 그대로 노출하였다.⁵⁶⁾

고르바초프의 사회개혁은 사회의 해방무드를 조성하고 획일성을 탈피하고자 언론통제와 문화예술 활동의 규제를 완화하고 알콜퇴치 사회기강운동을 확산시키며 사상과 종교의 자유를 존중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나, 이는 소련 국민들의 가치관을 혼란하게 함으로써 사회무질서라는 진통기를 초래할지도 모르는 한계성을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4. 經濟改革



소련의 경제부문에서, 국유화와 집단화는 시장경제를 파괴하고, 왜곡된 분배제도(계획목표 달성위주)는 생산의욕을 저하시켰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영향은 계획만능주의라 할 수 있다.

이는 교육수준이 낮은 스탈린 추종자들의 사고와 연계되어 계획경제와 사회주의 건설의 불가분성과 시장구조의 도입은 곧 정치적 아니키를 의미한다는 강한 에토스를 낳았다.⁵⁷⁾ 이러한 관념은 지금까지 소련 경제개혁의 근본적인 장애요인이 되어왔다.

56) 조선일보, 1989년 3월 5일.

57) 조선일보, 1989년 4월 11일.

고르바초프는 집권 직후인 1985년 4월 전원회의에서 개혁의지를 천명하였고, 1986년 2월 제27차 전당대회에서 금세기말까지의 소련경제의 주요 발전방향을 제시하였으며, 1987년 1월 전원회의에서 경제개혁의 전제로서 정치개혁, 소위 민주화 개혁을 시작하였다. 이에 기초하여 6월 전원회의에서는 전적으로 경제개혁이 토의되었으며 참석자들은 경제운용의 근본적 개조를 위한 기본지침을 채택하였다.⁵⁸⁾

이 기본지침은 무엇보다도 이번의 경제개혁이 종래의 행정적 방식을 지양하고 경제적 운용방식을 도입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앞으로 경제관계는 사회 내의 상충하는 제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데 기초하게 될 것임을 밝히고 있다.

고르바초프의 경제개혁은 조직면에서 중앙통제의 강화와 동시에 하부의 일상적 관리 권한 확대를 병진하고, 기능적으로 행정적 지도 및 간섭의 지양과 경제적 방법에 의한 경제운용을 촉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고르바초프는 기업합동과 부문간 위원회 및 총국 설치 등 관리조직의 간소화를 추진하는 한 편, 산업성 등 중앙관료기구의 전략 계획 입안 기능을 강화하려 노력하고 있다. 기업에 대해서는 그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고 위로부터의 관료주위적 간섭에 대해 법적 보호조치를 강구하는 등 자주권 확대에 역점이 주어지고 있다.⁵⁹⁾

고르바초프는 또한 경제적 방법에 의한 관리를 도모하기 위해 경제 계획과 가격제도, 재정, 금융제도 등의 개편을 계획하고 있으며, 이로써 주요 경제지표를 통해 기업의 자주적 경영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이를 감독할 수 있도록 바라고 있다. 그는 이와 함께 근로의욕의 고취를 규율 강화에 의하기 보다는 궁극적으로 물질적 자극을 통해 이룩하려 한다. 그는 임금 평준화에 반대하며 임금이 노동의 결과와 밀접히 관련될 것을 강조하고 있다.⁶⁰⁾

소련의 경제구조 개혁과 관련된 문제점을 요약하면 대체로 다음과 같은 요인들이다.

58) 정한구, "소련경제발전의 역사적 배경", 한국슬라브학회편, 「러시아 혁명기의 사회와 문화(서울: 민음사, 1988), p. 73. 재인용.

59) 상계논문, p. 76.

60) 상계논문, p. 76.

첫째, 계획분야와 관련하여 지나친 주관주의적 접근 방식에 의해 매우 사소한 것에 이르는 모든 것을 포함하려는 욕구에 집착되어 있다는 것과, 계획은 자주과학적 근거를 결핍하였으며 국민경제의 효율적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사회주의 경제체제를 비효율적으로 만들었다는 점이다.

둘째, 지금까지 생산과 노동인센티브가 본질적으로 양적이며 외연적 성장만을 추진시킨 점이다. 사회주의적 소유는 주인 없는 무효의 것이 되어 많은 경우 不勞所得을 얻는 데 이용되었다. 이는 협동조합재산이나 콜호즈에 대한 관료적 관리체제를 형성케 한 동시에 생산자들의 산업협동의 폐지를 유도하였다.

셋째, 개인부업과 개인의 노동활동에 대한 견해에 있어서 중대한 착오가 있었다는 점이다.

넷째, 상품-화폐간의 역할과 가치법칙의 운용에 대한 편견으로 이를 사회주의에 대립되는 것으로 여겨왔다는 점이다. 이러한 생각은 결과적으로 경제에 대한 主義主義, 독립채산제의 과소평가, 임금균등제 등을 야기시키는 한 편, 가격형성에 있어 화폐유통의 파괴, 수요와 공급의 조절문제에 대한 무관심을 초래하였다.

다섯째, 이와 관련하여 기업과 기업연합의 독립채산제의 권리제한과 노동자에 대한 임금 균등제에 따른 부정적 결과이다.

“기업과 기업연합의 독립채산제의 권리를 제한함에 따라 특히 중대한 결과가 초래되었다. 이것은 물질적 인센티브의 기반을 훼손시켰고, 높은 수준의 최종성과를 얻는 데 장애가 되었으며, 인민의 노동과 사회활동의 무력화, 규율과 질서의 와해를 유도하였다.”⁶¹⁾

사실상 소련에서의 경제개혁은 빈번하게 있어왔던 일이다. 혁명초기 사회주의체제로의 진입을 위한 전시공산주의 정책(1917~21)하에서 레닌은 신경제 정책(NEP)⁶²⁾을 채택하여 1921~27년까지 추진하였고, 스탈린 이후 현재까지 10여회에 걸친 5

61) 고르바초프, 러시아연구회 편역, 전제서, p. 168.

62) NEP의 우선적 목적은 상품, 화폐관계를 바탕으로 한 도시와 농촌 간의 교환, 즉 국가의 생산과 식량사정을 정상화하는 것이었다. 고르바초프, 하용출 역, 전제서, p. 139.

개년 계획을 추진해오면서 리베르만(E. G. Liberman)제안을 비롯, 코시긴(Kosygin) 경제개혁, 신경제개혁 등 크고 작은 개혁과 경제실험을 해왔다. 후르시초프, 브레즈네프, 안드로포프 등도 경제개혁의 필요성을 실감하고 실천하려 하였으나 실패로 끝났다.

다음 <표1>은 소련 경제개혁의 진행과정을 요약한 것이다.⁶³⁾

구 분	성 격	주 요 내 용	비 고
○ 후르시초프 (1956)	○ 체제보완적 비능률성제거	○ 계획절차의 개선 ○ 관리기구의 개편 ○ 물질적 유인제도 도입	○ 후르시초프 실각으로 도중 중단
○ 코시긴 (1965, 1967)	○ 체제내적 동질 변화(개혁, 보수 의 절충)	○ 관리방법의 개선 ○ 인센티브방법의 개선 ○ 성공지표제 도입	○ 보수파 우세 ○ 이질 변화 불가
○ 브레즈네프 (1973, 1979)	○ 포괄적인 체제 내적 동질변화	○ 생산합동제의 채택 ○ 계획의 장기적 일관성 강조 ○ 경제단위의 독립채산제 도입	○ 보수성향만 강화

고르바췌프의 개혁은 과거의 지도자들이 조성해온 요건 위에서 실시되고 있는 것이기는 하나 종전과는 다른 점이 있다. 그것은 첫째로 지도자 뿐만 아니라 국민에게도 개혁의 욕구와 의지가 보다 강해졌다는 점과 둘째로 개혁에의 추진방법과 실천수단 등이 새로워졌으며, 셋째로 개혁에 임하는 자세가 진지한 점 등이다.

페레스트로이카의 경제부문에 관한 계획은 다음과 같은 3단계로 구분하여 추진되고 있다.⁶⁴⁾

제1단계(1985~1987)는 준비기로서 계획경제의 운영과정에서 누적된 제반문제의 인식, 그 생성원인의 이해,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개발기

63) 신승철, "소련의 경제발전과 경제개혁 간의 상관성", 「중소연구」, 제11권, 제1호, 한양대중소연구소 (1987), p. 134.

64) 서재명, "소련의 경제개혁에 관한 연구", 「슬라브연구」, 제4권, 한국외국어대학교 소련 및 동구문제연구소 (1988), pp. 82~84.

간이다.

이 단계에서의 진행사업은 다음 여섯가지로 집약된다.

- (1) 국민의식개혁과 금주운동
- (2) 무능력하고 부패한 공무원들의 대거 교체
- (3) 모든 제품의 품질 관리 강화
- (4) 몇몇 정부 부처의 합병 및 무역권 확대
- (5) 소규모 사적 기업 활동의 합법화
- (6) 첨단 기술 산업에의 집중적 투자

제2단계(1988~1990)는 새로운 제도로의 이행기로서 페레스트로이카의 성공여부를 판가름할 수 있는 결정적인 단계이다. 왜냐하면 개혁의 실체가 이 기간 동안에 추진되기 때문이다.

이 단계에서의 사업의 핵심적 내용은 다음의 여섯가지이다.

- (1) 기업 경영에 있어서 독립성의 확대
- (2) 독립채산제의 도입과 원자재를 포함한 중간투입물의 기업간 거래확대
- (3) 연구 및 기술개발과 생산기업간 밀접한 협조체제의 강화
- (4) 중앙집권적 관료주의의 정비
- (5) 가격체제의 개혁
- (6) 새로운 제도 및 경제운영체제의 작동을 위한 학습

이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개혁의 핵심은 소련기업의 경영합리화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는 국가기업법의 제정과 시행에 있다. 1987년 6월에 제정된 이 법은 기업 경영의 자주성 확대와 기업경영이 경제적 책임 즉 기업의 損益計算源理(khozraschet)에 의해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국가기업법의 기본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노동자가 기업의 자주적 주체가 되어 모든 문제를 해결한다.
- 2) 모든 기업은 손익계산원리에 의해 운영하고 기업법 경영실적에 따라 임금기금, 사회발전기금 과학기술발전기금 등의 모든 기금을 자주적으로 형성한다.
- 3) 기업경영은 중앙의 행정지침과 노동자의 자주관리의 결합으로 이루어진다.
- 4) 모든 관리요원은 선거에 의해 선출된다.

제2단계 기간 중에는 모든 기업이 독립채산제를 채택, 운영토록 추진되고 있는데 이러한 사실은 소련경제체제에서 획기적인 변화라 할 것이다. 그러나 이 단계에서의 변화는 너무 급진적이고 빠른 것이기 때문에 이 기간 중에 구질서와 새로운 제도 그리고 신·구벌령과 지침간의 혼합과 상충이 여하히 조정, 통합될 것인가가 제2단계 개혁사업의 성공여부를 판가름하게 될 것이다.

제3단계(1990~)는 도약기로서 새로운 제도가 정착하여 소련경제가 사회주의 발전의 본격적인 궤도로 진입하는 기간이다.

이 단계에서 계획된 사업은 다음 3가지로 요약된다.

- (1) 경제전체에서의 새로운 체제
- (2) 지속적인 교육, 학습, 적응
- (3) 동기향상과 투자정상화로 성장가속

이 기간에 기업은 국가명령의 형태로 임무를 부여받게 되고, 그것은 점차 감소하게 된다. 또한 새로운 가격체제의 형성을 통하여 중간투입물은 도매시장에서 기업간의 매매로 조달된다. 기업의 투자자금도 기업이윤과 은행으로 충당된다. 제3단계를 거치고 나면 소련의 경제는 활력을 찾아 고도성장이 이루어질 것이며 국민 후생의 향상도 커질 것이라 기대한다.

고르바초프는 또한 소련에 광범위하게 존재하고 있는 지하경제 즉, 제2경제를 양성화함으로써 소비재 부족 현상이나 용역의 결핍증을 완화하고 경직화된 경제구조에 대하여 완충적 작용을 가하고자 한다.⁶⁵⁾

公的 경제 즉 제1경제가 국가계획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반면, 제2경제는 국가계획의 틀에서 빠져나와 私的 노동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그 대부분이 비합법적 경제활동이지만 소련국민에게는 필요한 소비물자의 부족과 질의 저급함을 보충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제2경제에 관련된 경제행위가 부정, 부패 그리고 경제질서 문란의 근원이기 때문에 당국의 사법적 단속 대상이 되어왔다.

고르바초프는 1986년 5월 不勞所得과의 투쟁강화를 결정하여 부정한 경제활동의 단속을 강화함과 동시에 11월에는 개인적 노동활동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제2경제

65) 서재명, 전계논문, p. 84.

의 일부를 공인하는 정책을 채택하는 등 제2경제를 경제개혁의 주요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소련경제개혁의 본질을 요약하면 (1)행정적·지령적 방법에 의한 관리로부터 경제적 방법에 의한 관리로의 이행 (2) 기업의 자주성 확대와 근로의욕의 물적자극 (3) 투자효율의 제고와 소비자 선택의 자유확대 등에 의한 경제효율 향상 등이라 할 수 있다.⁶⁶⁾

결국, 페레스트로이카는 중앙-통제경제체제를 벗어나려는 노력으로 볼 수 있는데 1988년의 협동조합법, 농업의 장기임대제도의 도입, 외국기업과의 합작 및 무역허용 등이 그 예라 할 것이다.

그러나 아직도 이의 대대적인 실시는 미미한 수준이며, 특히 가격체계의 변화는 쉽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공산품은 1990년, 농산품은 1991년에 가서 가격이 재조정될 예정으로 있다. 또한 중앙관료의 압력 등으로 계획 경제는 아직도 가장 중요한 부문으로 남아 있으며, 시장경제의 적용은 서비스부문에 국한되어 있는 상태이다.

이렇게 볼 때 페레스트로이카는 사회주의제도나 중앙집권적인 계획경제의 본질을 변혁시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

정치적으로는 여전히 공산당이 권력을 장악하고 경제성장템포와 그 방향 및 투자율과 투자재원의 배분은 중앙당국이 결정하며 국방과 정치목적을 위해 많은 자원을 이용하고 있다. 또한 사회주의 형태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으며 주요물자의 할당배급제와 공정가격제는 그대로 남아 있다. 따라서 고르바초프의 경제개혁을 자본주의의 부활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

오늘날 소련에서 기업이 이윤추구를 위해서 운영된다고는 하나 그 이윤은 투자가(개인)의 소득이 되는 것이 아니라 기업종업원의 소득 또는 국가의 재정수입(이윤공채로 인한)으로 되기 때문에 사회주의 경제체제는 근본적으로 변화하는 것이 아니라 부분적으로 약간 변모했다고 할 수 있다.⁶⁷⁾

66) 조인석, "소련 사회주의 경제개혁에 관한 고찰", 「현대사회」(1988. 겨울호), p. 63.

67) 상계논문, p. 64.

4. '새로운 思考'와 平和共存 政策

페레스트로이카는 외교정책적 차원에서 긴장완화와 평화공존이라는 큰 테두리 속에서 실시되고 있으며 '양대진영론'을 사실상 포기하는 것을 의미한다.

제2차 대전 이후부터 현재까지 전세계는 미·소 양대국의 세력균형에 의해서 좌우되어온 것이 사실이나, 21세기를 지향하는 오늘 이 양대국의 균형은 5각형의 균형상태로 바뀌어가고 있다. 즉 미국-캐나다, 소련, 중국, 유럽공동시장지역, 일본,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태평양 경제협력 지역들이 이 5각을 의미하는 것이다.⁶⁸⁾

소련에서의 '세력균형정책'은 고르바초프가 등장한 이래로 '이익균형'쪽으로 나아가고 있고, 이것은 고르바초프의 '새로운 사고'방식에 의하여 세계질서를 형성하려는 생각에서 비롯된 것이라 볼 수 있다.

고르바초프는 자신이 취하고 있는 일련의 평화공세는 국내의 개혁정책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는 제27차 당대회에 제출한 정치보고서에서 "국가의 경제·사회발전을 위한 과제들이 세계무대에서 소련공산당이 취할 전략을 결정한다."⁶⁹⁾고 하면서 그 연계성을 강조한다. 그는 국내개혁정책의 성공이 대외관계의 조정여부에 달려 있다는 인식에서 국내사회의 전반적 안정을 위한 외교적 공세를 전개하고 있는 것이다.

앞에서 지적했듯이 고르바초프의 평화노선은 전쟁은 '혁명의 산파'라는 교조적 인식하에 불세비키들이 오랫동안 고수해온 자본주의 세력과의 전쟁불가피론을 공식적으로 파기하고 있음을 뜻하는 것이다.

"이제 제국주의적 관점에 선 외교정책을 포기해야 할 때가 왔다. 미·소는 둘 다 자기의 의지를 다른 나라에 강요할 수 없다. ...한 국가는 자본주의든 사회주의든 선택할 수 있으며 이것이 바로 주권을 행사하는 것이다."⁷⁰⁾라고 고르바초프는 말하면

68) 조선일보, 1989년 1월 17일.

69) 진장철, 전제논문, p. 39. 재인용.

70) 고르바초프, 하용출 역, 전제서, pp. 168~173.

서 '새로운 사고'의 초점은 바로 인간가치에 대한 우선순위, 즉 인류생존에 대한 우선순위라고 강조하고 있다.

더욱 구체적으로 고르바초프 외교정책의 평화공존원칙은 다음의 그의 말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국가간의 정치, 경제, 이데올로기적 경쟁은 불가피하다. 그러나 이것은 반드시 협력을 상정하는 평화적 경쟁이라는 틀 속에서 유지될 수 있어야 한다. 두 체제의 장점을 판가름하는 것은 앞으로의 역사에 달려 있다. ...어느 체제가 인간의 요구와 이해관계에 맞는지 각 체제가 그 능력을 입증하도록 하자. 지구상의 국가와 민족은 서로 다르며 실제적으로 그런 것이 좋은 것이다. 이런 것이 경쟁을 위한 요인이 된다. 반대측과의 변증법적 통일이라는 이해력이야말로 평화공존의 개념에 딱 들어맞는 것이다.”⁷¹⁾

실제로 고르바초프의 이러한 외교노선은 각종 지역분쟁을 해결짓거나 해결의 실마리를 마련하였으며 군축문제에 있어서도 획기적인 진전을 이루는 데 기여하였다.⁷²⁾

1988년 5월 말에는 미·소 정상회담을 통해 사상최초로 핵무기 폐기가 실시되었으며, 8년 이상을 끌어오던 아프간 사태가 종결되었고, 이외에 같은 해 12월 초, 유럽 주둔 병력의 50만명 감축을 일방적으로 선언함으로써 실질적인 긴장완화의 계기를 마련하였을 뿐만 아니라, 環太平洋 회의 구상 제의(1988. 5) 및 캄란반에서의 일방철수 개시(1988. 12) 등으로 한국과 직접 관련이 있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의 긴장완화를 위한 각종 구상들을 내놓았다. 또한 1988년 3월 19일의 신베오그라드 선언⁷³⁾은 사회주의 동맹국들에게 자을노선 추구의 길을 마련해 주었다.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이러한 일련의 외교정책들은 서방의 자본과 기술을 도입하여 경제적 낙후성을 극복하면서 각종 병목 현상을 보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임에 분명하다.

소련은 외국과의 합작투자를 장려하고, 필요하다면 직접투자까지도 허용할 방침

71) 전게서, p. 179.

72) 동아일보, 1988년 12월 29일.

73) 고르바초프, 러시아연구회 편역, 전게서, p. 290. 참조.

을 갖고 있으며, 자본재 도입용 硬貨를 획득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수출입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자율권의 부여와 무역제도의 간편화를 시도하고 있다.⁷⁴⁾

유럽공동시장기구 EC와 동구경제협력기구 코메콘 간의 상호협력 조약 체결(1987. 5. 룩셈부르크에서), 발트해안 지역(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일대에 대한 서유럽 국가들의 대대적인 개발계획 등은 이러한 노력의 일환이다.

더욱이 고르바초프는 아시아·태평양 국가들에게도 관심을 증대시키고 있다. 구체적으로 블라디보스톡 선언(1986. 7. 28)⁷⁵⁾을 비롯하여 예브게니 프리마코프의 일본 오사카에서 개최된 제6차 태평양 경제협력기구(PECC)에의 참석, 고르바초프의 크라스노야르스크 선언(1988. 9. 16), 블라디보스톡 국제회의(1988. 9~11) 등 일련의 현상들이 그것을 입증하고 있다.

기존의 소련의 아시아정책에는 3가지 측면이 있다.⁷⁶⁾

첫째, 러시아 이래의 전통적인 국가이익의 추구를 지향하는 것으로 직접적으로 국경을 접한 중국, 인도, 중동에 대한 정책은 이러한 관점이 강하다.

둘째, 전후 미국과 함께 세계국가의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던 이유로 미국의 세계 전략에 어쩔 수 없이 대응하는 것으로 초기의 인도차이나, 한반도, 일본 대책은 이러한 경향이 강하였다.

셋째, 1970년대 들어 새롭게 더해진 중국과의 대립요소이다. 인도차이나 3국, 후기의 몽고 대책을 포함시킬 수 있다. 다만 현재 이 3가지 요소는 각각 전환기에 있고 고르바초프는 그 전환을 대담하게 촉진하고 있다.

고르바초프 정권 탄생 이래의 동아시아에서 발생한 가장 현저한 변화는 바로 소련의 중국에 대한 정책의 전환이라 할 수 있다. 고르바초프의 동아시아외교는 큰 영향을 미치며, 그것이 최근의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새로운 움직임을 이해하기 위한 관건이 되고 있는 것이다.

74) 신승철, 전제논문, p. 149.

75) 홍현기, 「전환기의 한반도」(서울: 태백, 1988), p. 297. 참조.

76) 杉森康二, “고르바초프 정권 하의 소련의 아시아 정책”, 「중소연구」, 제11권, 제1호, 한양대중소연구소 (1987), p. 101.

고르바초프의 블라디보스톡 연설은 당면한 문제로 중국과의 관계개선을 호소함과 아울러 장기적 전망을 지닌 '태평양 평화 구상'을 제기함에 따라 소련이 태평양 국가임을 선언한 것이었다. "소련도 아시아·태평양 국가의 하나이고 이 광대한 지역의 복잡한 여러 문제에 대하여 무관심하지 않으며 그것들과 밀접하게 접촉하고 있다."⁷⁷⁾

소련이 이 장기구상을 제기하였던 배경에는 첫째, 중·소화해에 의해 소련이 북쪽의 베링해협에서 캄차카 반도, 쿠릴열도를 거쳐 인도차이나 반도에 이르는 태평양 국가로 되었다는 지리적 조건의 성립이라는 측면이 있다. 당연히 앞으로 소련은 태평양의 모든 문제에 대하여 발언권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주장하였던 것이다.

둘째, 소련장래의 경제발전을 위해 태평양 해역의 안전확보가 불가결한 과제로 되었고, 그 장래계획과 보조를 맞추어 이 정책이 제창된 점이다. 소련은 자국을 해양 국가로 변신시키고자 하고 있다. 즉 北極海 항로를 활발화하고 소련의 내륙부분에서 북극해로 유입되는 대형선박의 운행이 가능한 대하천과 연결시킴으로써 임해지역에서의 자원과 공업을 개발한다는 대구상과 결부된다. 소련이 해양국가로 변모하고 북극해와 태평양을 결합하게 된다면 세계경제의 가운데에서도 가장 성공률이 높은 태평양 지역에 관심을 갖는 것은 당연한 일이며, 이 태평양 정책은 소련 자체의 장래 구상과 관계되는 것이다. 일본이 주최한 '태평양 경제 위원회'에 소련이 가맹을 신청한 것은 이상의 사정과 무관하지 않다.

셋째, 소련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의 긴장증대를 바라지 않는다는 점을 이 선언을 통해 표명하였다는 점이다. 소련은 이 지역에서 '현상의 질서유지'를 바라고 있다. 아시아는 유럽과 달리 전유럽 집단 안보체제를 성립시켰던 고정된 질서가 형성되어 있지 않다. 즉 각국의 지도자가 과거의 諸問題를 넘어서 한 자리에 모여 현상의 질서를 확인하기 위한 전제가 성립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소련은 자신의 계획을 현실적으로 제기하게 된 것이다.⁷⁸⁾

고르바초프는 이 블라디보스톡 선언에서 소-중관계 개선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3가지 항의 중요한 제의를 하였다.

77) 홍현기, 전제서, p. 304.

78) 杉森康二, 전제논문, pp. 105~106.

첫째, 분쟁의 초점이었던 흑룡강의 국경분계선을 국제법(즉, 강의 중간선)에 의하여 해결하기로 하고 동시에 이 강에 대한 3대 공동작업을 제의하였다. 즉, 공동수력발전소 건설, 공동운항 개설, 공동어업작업 등이 그것이다.

둘째, 소-중간 제2의 철도 연결을 제의하였다.

소련 중앙아시아 카자흐 공화국과 중국 신장지역을 연결할 이 철도는 모스크바~북경거리의 3분의 1을 단축하고, 이 지방 일대는 이 철도의 개통으로 많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철도건설을 신속히 하기 위해 소련은 자체의 곤란에도 불구하고 미국화폐로 8천 2백 20만 달러의 차관을 4%의 이자로 제공했음이 1988년 10월에 발표되었다. 이 철도는 1989년 완성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셋째, 고르바초프는 소련의 우주비행에 중국의 우주비행사들이 합승하기를 제의하였으나 이것은 중국측이 거절하였다.

여하튼 소련과 중국과의 관계는 획기적으로 개선되었으며 1950년대 초와 같은 험악한 관계는 이제 상상할 수 없다.

또한 고르바초프는 1988년 9월의 시베리아 크라스노야르스크 연설에서 아시아·태평양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한 평화안을 제의하였다.⁷⁹⁾

이 연설의 주요 내용은 미국에 대하여 亞·태 지역에서 핵무기 증강 및 해군력과 공군력의 제한, 軍事基地 철수, 레이더 기지의 상호평화적 목적을 위한 이용 제의와 미국을 포함한 극동지역의 국가들이 참가하는 군사회담과 지역전반의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회의 제안 등이다.

이러한 제안들도 소련의 지속적 아·태 지역 정책의 연장선상에서 이해될 수 있다. 또한 이 제안은 소련의 외교정책 전환을 통한 극동지역 진출에 대한 강한 의지의 표현이며 이와 관련된 외교정책상의 갈등을 해결하려는 지속적 노력의 일환으로 평가될 수 있다.

결국, 고르바초프의 외교정책은 국내문제의 해결에 주력하면서 그 해결의 관점을 대외적 안정과 대외관계의 확대에서 찾고 있는 노력은 외부세계의 불신과는 상관 없이 일단은 국제적 평화 정착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리라 본다.

79) 동아일보, 1988년 9월 16일.

또한 그의 동아시아 정책도 평화수립과 경제협력을 표방하는 외교공세가 이 지역의 긴장완화와 새로운 관계정립의 기회를 안겨다 주고 있다고 할 것이다.

V. 結 論：要約 및 展望

이상에서 살펴 보았듯이 고르바초프의 政治路線인 페레스트로이카는 소련의 모든 부문, 즉 정치·사회·경제·문화·과학기술·교육·군부 등에 걸친 광범위하고도 혁신적인 사업임에 의심의 여지가 없으며 그것은 결국 '社會의 民主化'와 '經濟의 活性化'라는 두 캐치프레이즈로 대별될 수 있다.

고르바초프는 권좌에 오르기 전부터 소련경제의 침체를 심각하게 우려하였으며, 그의 집권은 스탈린 정치가 초래한 사회전반적인 否定的 側面에 대해 '새로운 思考'를 가지고 발본적인 變革을 가하게 하였다.

페레스트로이카의 주요 背景이 되는 것은, 우선 정치이념적 측면에서 소련에서 도식화되어 있는 社會主義 이론구조가 시대상황에 걸맞지 않다고 하는 인식이다. 특히 스탈린주의의 커다란 영향에 의해 사회의 제반조직들도 관료주의의 타성에 젖어 경직화되어 있으며, 이는 사회주의의 제반특성을 교조화하여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요구들을 제대로 충족시킬 능력을 결여시키고 있다. 특히, 소련 사회에서의 관료주의의 병폐는 소련에서 진행되고 있는 제반 社會·經濟的인 변화나 과학기술의 진보에 커다란 저해요인의 하나로 지적된다.

다음은 경제의 침체로서, 소련 경제성장의 둔화요인은 (1)농업의 부진 (2) 군사비 부담의 증대 (3) 노동력의 부족 (4) 자원개발이 점차 북과 동쪽으로 옮겨지고 코스트가 매우 높아진 점 (5) 경제의 기초설비가 낙후된 점 (6) 기술진보의 정체 (7) 계획 관리체제의 경직화와 효율성 저하 등으로 요약된다.

따라서 고르바초프는 장기간 침체상태에 빠진 경제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경제개혁을 가속화시키지 않으면 안되며 거기에는 반드시 정치제도와 사회부문의 개혁도 불가피하다고 주장함으로써 페레스트로이카를 추진하게 된 것이다.

고르바초프의 개혁의 특징은 다음의 4가지로 요약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이데올로기 측면에서의 페레스트로이카는 生活과 價値 두 가지 면에서의 레닌이즘으로의 완전한 복귀와 스탈린주의의 청산을 의미하며 결코 사회주의를 포기

하거나 자본주의 사회로의 전환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둘째, 정치적 측면에서의 페레스트로이카는 글라스노스트 원칙을 기본으로 사회주의적 민주주의 원칙을 견지한다. 글라스노스트, 즉 공개정치로 인해 소련내부의 구조적인 개편의 필요성이 주지되기 시작했으며, 그것 없이는 사회주의의 모든 가능성과 우위성을 표면화시켜 활용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본다. 또한 사회의 민주화의 발전에 페레스트로이카의 성공여부와 사회주의 전체의 미래가 달려 있다고 보면서 사회주의적 민주주의 원칙을 강조한다. 즉 민주주의의 발전은 사회주의의 터전을 요청한다는 논리에서 민주주의와의 결합을 통해서만 사회주의의 발전이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소비에트 사회주의적 완성을 위한 필수적인 전제는 사회주의적 민주주의 원칙이라는 것이다.

고르바초프는 이에 따라 당내의 인사를 젊고 패기에 찬 인물들로 대거 교체 하였으며, 글라스노스트의 일환으로 비공식야당인 '민주연합'이 출현하는 등 정치의사의 표출이 보다 자유로워지고 그 일례로 1988년에 처음으로 적자예산안이 공개되었다.

정치개혁내용을 요약하면 (1) 정부 관료제의 개혁 (2) 당리더쉽의 교체 (3) 선거제도의 개혁(복수후보, 비밀투표제) (4) 반체제인사의 석방 등이다.

셋째, 사회·경제적 측면에서의 페레스트로이카는 우선 사회적으로는 반사회적 태도와 과대평균주의 그리고 극단적인 국가, 사회 또는 타인에 대한 의존적인 태도 및 소비우선주의를 타파하려 한다. 경제적으로는 (1) 생산공정에 있어 최신의 과학기술의 성과를 흡수함으로써 생산성의 대폭적 향상을 기하며, (2) 생산과 유통과정의 양면을 전면적으로 개혁함으로써 이 부문의 비리를 철저히 배제하고 노동생산과정에서 있어온 비리를 전면적으로 정화하고, (3) 국가에 의해 집행되어온 가격체제를 전면적으로 재평가, 생산의욕을 재고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재편되어야 함을 내용으로 한다.

넷째, 외교정책적 측면에서의 페레스트로이카는 '새로운 사고'와 평화공존의 원칙을 내세운다. 이러한 원칙 하에서 고르바초프는 대서방 개방과 우호적 협력을 강조하고 있으며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있어서도 대대적인 일련의 평화공세를 펴오고 있다. 핵무기 폐기 협정, 아프가니스탄 철군, 유럽중둔군의 감축 선언, 아·태지역을 향한 각종 구상 및 선언, 중소관계의 개선 등은 국제환경질서의 안정에 사실상

기여하고 있다고 본다.

다음 <표2>는 고르바초프 개혁의 내용과 그 한계를 정리한 것이다.⁸⁰⁾

구 분	목 적	주 요 골 자	한 계 성
정치개혁	○경직된 관료제도 탈피 (수구파제거) ○협력적 수평조직화	○복수후보, 비밀투표제(선거제도개혁) ○당의 연경화와 민주화 ○반체제 인사의 석방 ○KGB의 탈성역화	당-정분리나 정-경 분리는 상당기간 곤란
사회개혁	○해빙무드의 조성 ○확일성 탈피	○언론통제의 완화(glasnost) ○문화예술활동의 규제 완화 ○알콜퇴치 사회기강 운동 ○사상, 종교의 자유 존중	가치관의 혼란으로 사회 무질서라는 진통기 초래
경제개혁	○비효율성 불식 ○재도약의 기반조 성	○민간 자영업의 허용 ○기업의 자율성 확대 ○각종인센티브제도(근로이익고취)	체제내적 이질변화 는 가능하나 시장 사회주의까지의 기 대는 곤란
대외개방	○서방의 자본기술 도입 ○낙후성과 각종 병목현상 해소	○외국과의 합자투자 허용 ○무역제도 개편과 권한 이양 ○정치 군사적 평화공세 ○대외협력 강화와 국제기구 가입	대폭적인 개방(중국 식 개방)까지는 못 미치는 소극성

소비에트체제의 불균형적 기술수준, 침체된 경제, 퇴색되어가는 이데올로기를 레닌의 신경제정책과 민주집중제로 극복하려는 고르바초프의 노력은 결코 낙관적이지 않은 것 같다. 특히 그의 경제개혁은 사회주의 이념을 유지하면서 의사결정의 집권화와 분권화의 최적 조합 형태의 모색, 그리고 명령에 의한 관리체제와 시장의 기능을 통한 관리체제를 어떻게 조화시켜 나가느냐의 모색과정으로 보여지지만, 이러한 과정에서 개혁정책에 대한 국민적 이해와 합의가 어느 정도 이뤄질 것이며, 그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변화와 혼란을 어느 만큼 흡수, 소화할 수 있을 것인가에 그 성패는 달려 있다고 할 것이다.

더욱 구체적으로 고르바초프의 경제개혁의 운명에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할 요인들을 밝힌다면 다음과 같다.⁸¹⁾

80) 신승철, 전제논문, p. 150. 참조.

81) 서재명, 전제논문, p. 99.

(1) 산업 생산에 있어서 국가의 계획지표에 의해 생산되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될 것인가가 중요하다. 만약에 그 비율이 계속해서 큰 비중, 예컨대 60% 이상을 차지하게 된다면 계획자들의 선호가 강하게 작용하여 민주적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실현은 불가능해질 것이다.

(2) 고르바초프 경제개혁의 성패는 가격체계의 개혁이 진정으로 생산자와 소비자 간에 정보를 전달해줄 수 있게 되고, 양자간의 자유로운 계약이나 협의에 의해 가격이 형성되며, 가격이 진정으로 자원배분의 기능을 할 수 있게 할 것인가의 여하에 좌우된다.

(3) 기업경영에 있어서 독립채산제(獨立採算制) 도입과 자율성의 확대가 기업간의 경쟁을 유발하고 適者만 생존하게 할 수 있도록 기능할 수 있을 것인가가 소련경제에 활력과 효율을 확대시켜줄 것이다.

사실상 고르바초프에게는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페레스트로이카를 추진한지 4년째가 되는 현 시점에서 아직은 그렇다 할 성과를 올리지 못한 상태로 과도기적 혼란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소련 경제는 페레스트로이카의 실시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예산적자와 인플레이션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 가장 큰 위기는 1천6백억 달러에 이르는 예산적자와 극심한 인플레이션 현상으로서, 소련이 자국산 석유의 수출을 중단함에 따라 불어나기 시작한 이 예산적자는 체르노빌 핵발전소 사고와 1988년 12월 아르메니아 지진에 따른 구호기금지출로 인해 더욱 확대되었다. 또한 국내 생산성 제고를 위해 실시된 금주 캠페인으로 보드카 판매가 격감하면서 정부의 수입이 매년 1백 60억달러 이상 줄어든 것도 예산적자를 부채질한 요인이 되고 있다.

그러나 한 편 글라스노트로 인해 표면화되기 시작한 소련내 민족분쟁의 문제와 민족주의의 열기로 싸여 있는 동구제국들의 소련노선 이탈 움직임에 대해서도 고르바초프로서는 어려운 과제라 아니할 수 없다.

여하튼, 소련 체제개혁의 상당부분에 있어서 가장 공고한 장애요인은 여전한 일당독점 지배현상과 뿌리 깊은 관료제도의 문제라고 하지 않을 수 없으며 고르바초프는 이에 공산당 독재를 공산당 지배로 환원하여 소비에트를 통한 사회세력의 흡수와 정책집행과정의 행정적 참여 확대 및 산업민주주의의 심화로 정치적 문제를 해결해나

가려 하고 있는 듯 하다.

결국, 고르바초프는 개혁에 필수적인 민주화와 지방분권을 장려하면서도 중앙통제력 확보를 원하고 있으나 상호대립되는 이 두 가지 원칙을 절충시키기란 결코 용이하지 않다.

글라스노스트가 제기하는 극우 보수 진보세력의 포용도 쉽지 않은 과제가 될 것이며 경제개혁이 제기하는 문제도 과연 소련이 이러한 개혁으로 계획경제를 얼마나 벗어난 것이며 현 단계의 경제문제해결을 위해 적합한 것인가 하는 점이다. 특히 주목할 것은 각종 개혁조치-경제특구, 합작법 등-는 소련 경제해결의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며 우회적 조치라는 점이다. 소련의 경제개혁은 초기단계에서 혼란을 가져왔고 이는 다시 정치지도자들의 개혁 의지를 무산시켰던 것이 과거의 경험이었다. 그러나 고르바초프 하에서는 누적된 개혁실패로 상당히 오랜 기간 유예를 획득한 것처럼 보인다. 이는 최근 농산물 생산의 감소, 경제성장의 둔화에도 불구하고 고르바초프의 개혁노력이 계속되고 있음에서 볼 수 있다.

페레스트로이카는 소련 사회의 전부분에 걸친 개혁으로 장시간 최소한 10년의 꾸준한 집행이 요구된다. 그러므로 강력한 대중의 지지와 지도자의 집행의지가 요청된다고 본다.

따라서 사회부문의 활성화 없이는 그 성공을 기대하기 어려우며, 최근 소비에트 선지에서 나타난 태도의 변화가 행위의 변화로 전환되는 데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소련의 외교정책에 있어서도 세계적 현상유지에 역점을 두면서 국가간의 화해를 추구하고 있음을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외교정책은 소련 경제현실에 대한 감안과 이념적 입장의 수정을 통하여 가능하였다. 그러나 이것 역시 소련이 국내 및 국제적으로 봉착한 상황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소련의 페레스트로이카는 소련형 사회주의 건설의 부작용을 제거하는 작업으로서, 소련형의 참여제한형 엘리트 사회주의의 성격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오게 할 것이라 예상된다. 그러나 이것이 곧 사회주의 제도 자체의 멸망을 의미하거나 사회주의 이념의 소멸을 뜻하는 것은 더욱 아닐 것이다.

어쨌든, 고르바초프가 무엇을 원하든지간에 그의 개혁정책은 보다 개방된 사회로

나갈 것이며 그의 개혁의 전과정은 국제사회의 전반적인 안정에 기여하리라고 본다. 또한 개혁에의 총체적인 합의가 강하고 페레스트로이카에 대하여 불안해 하는 보수 관료들이 개혁에의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는 한, 고르바초프의 페레스트로이카는 한 단계 더 본질적인 개혁에의 접근을 가능케 할 것이라 전망된다.

參 考 文 獻

I. 韓國資料

가. 單行本

- 康仁德編. 「共產主義事典」. 서울 : 極東文化, 1983.
- 康仁德編. 「페레스트로이카」. 서울 : 極東問題研究所, 1988.
- 고르바초프. 러시아연구회編譯. 「혁명은 시작되고 있다」. 서울 : 白衣, 1988.
- 고르바초프. 하용출 譯. 「페레스트로이카」. 서울 : 사계절, 1988.
- 金達中編. 「蘇聯의 亞細亞政策과 韓半島」. 서울 : 法文社, 1987.
- 金達中編. 「東歐·蘇聯關係와 改革政治」. 서울 : 法文社, 1988.
- 나스기요시. 車大善 譯. 「무너져가는 蘇聯帝國」. 서울 : 공동, 1988.
- 데이비드 맥켈런. 강우란 譯. 「마르크스의 世界」. 서울 : 책세상, 1988.
- 메드베데프. 박찬길 譯. 「고르바초프」. 서울 : 방한출판사, 1988.
- 아벨·아간베기안. 김태홍·장오현 譯. 「페레스트로이카의 經濟的 挑戰」. 서울 : 우아당, 1989.
- 安澤源編著. 「蘇聯政治의 體系的 理解」. 서울 :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1986.
- 趙政男外3人. 「社會主義體制比較論」. 서울 : 형설출판사, 1988.
- 한국슬라브학회編. 「러시아革命期の 社會와 文化」. 서울 : 민음사, 1988.
- 홍현기. 「전환기의 한반도」. 서울 : 태백, 1988.

나. 論文

- 金東成. “고르바초프의 平和政勢와 西方陳營”. 「외교」. 제6호. 한국외교협회, 1987.
- 金富起. “소련 이데올로기의 變化.” 「소련의 이데올로기와 發展」.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세미나, 1986. 10.

- 金富起. “고르바초프의 對 아시아 和解政策.” 金達中編. 「蘇聯의 亞細亞政策과 韓半島」. 서울: 法文社, 1987.
- 金富起. “레닌주의와 고르바초프改革.” 金達中編. 「東歐·蘇聯關係와 改革政治」. 서울: 法文社, 1988.
- 金富起. “레닌으로 回歸하는 고르바초프.” 「民族知性」. 민족지성사, 1988. 6.
- 金昭中. “스탈린의 哲學思想과 民族問題.” 金達中編. 「東歐·蘇聯關係와 改革 政治」. 서울: 法文社, 1988.
- 金洙喜. “고르바초프의 改革과 이데올로기.” 「슬라브연구」. 제4권. 한국외국어대 소련 및 동구 문제연구소, 1988.
- 金淵洙. “社會主義 진영의 開放政策, 어디까지.” 「民族知性」. 민족지성사, 1988. 6.
- 마이클 플로린스키. “러시아 共產主義의 臺頭.” 安澤源編著. 「蘇聯政治의 體系的 理解」. 서울: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1986.
- 文首彦. “고르바초프의 改革과 限界.” 「소련의 이데올로기와 發展」.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세미나, 1986.
- 文首彦. “고르바초프의 平和政勢 背景으로서의 軍縮問題와 亞細亞.” 金達中編. 「蘇聯의 亞細亞政策과 韓半島」. 서울: 法文社, 1987.
- 서재명. “蘇聯의 經濟改革에 관한 研究.” 「슬라브연구」. 제4권. 한국외국어대 소련 및 동구문제연구소, 1988.
- 서진영. “中蘇의 變化와 韓半島 統一展望.” 「민족재결합의 모색」. 통일교육자료 제40집, 1988.
- 스기모리(杉森康二). “고르바초프政權下의 蘇聯의 아시아政策.” 「中蘇研究」. 제1권. 제1호. 한양대 증소연구소, 1987.
- 辛昇哲. “蘇聯의 經濟發展과 經濟改革간의 相關性.” _____.
- 아나톨리 부텐코. “글라스노스치에는 限界가 있는가.” 康仁德編. 「페레스트로이카」. 서울: 極東問題研究所, 1988.
- 안드류 시첵코. “글라스노스치.” _____.
- 安秉萬. “고르바초프體制와 權力엘리트.” 「슬라브연구」. 제4권. 한국외국어대

- 소련 및 동구문제연구소, 1988.
- 安澤源. “蘇聯의 經濟再編은 성공할 것인가.” 「民族知性」. 민족지성사, 1988. 6.
 - 梁好民. “고르바초프 指導體제의 確立과 政策路線.” 「北韓學報」. 제10집, 1986.
 - 梁好民. “中蘇의 體制改革路線과 그 限界.” 「이데올로기 研究論叢」. 제16집. 濟州 大學校 이데올로기 批判教育研究會, 1988.
 - 尹慶輝. “고르바초프 執權 後의 蘇聯.” 「共產圈 研究」. 극동문제연구소, 1988. 11.
 - 李容弼. “소련 社會主義體制 이데올로기의 變化와 持續.” 「현대사회」. 현대사회 연구소, 1988. 겨울호.
 - 鄭漢求. “고르바초프의 經濟改革과 展望.” 金達中編. 「東歐·蘇聯關係와 改革政治」. 서울: 法文社, 1988.
 - 趙仁錫. “소련 社會主義 經濟개혁에 관한 考察.” 「현대사회」. 현대사회연구소, 1988. 겨울호.
 - 趙政男. “페레스트로이카를 해부한다.” 「民族知性」. 민족지성사, 1988. 6.
 - 趙政男. “고르바초프의 改革과 政治理念.” 「國民倫理研究」. 제26호. 한국국민윤리학회, 1988. 7.
 - 趙政男. “社會主義體제의 改革構圖.” 「國民倫理研究」. 제27회. 한국국민윤리학회, 1988. 12.
 - 陳章哲. “소련의 改革政策과 現實主義外交論.” 「現代사회」. 현대사회연구소, 1988. 겨울호.
 - 타치아나 자슬라프스카야. “소련 社會 그룹별로 본 페레스트로이카에 대한 態度.” 「共產圈研究」. 극동문제연구소, 1988. 11.
 - 표도르 브르라츠키. “民主主義를 배운다.” 康仁德編. 「페레스트로이카」. 서울: 極東問題研究所, 1988.

II. 外國資料

- Archie Brown. “Gorbachev and Reform of the Soviet System.” *The Political Quarterly*. Vol. 58. No. 2 April-June. 1987.

- Archie Brown. "Change in the Soviet Union." *Foreign Affairs*. Vol. 64. No. 5. Summer. 1986.
- A. G. Noorani. "Soviet Ambitions in South Asia." *International Security*. Vol. 4. No. 3. Winter. 1979/80.
- Boris Meissner. "Gorbachev's Prestroika : Reform or Revolution." *Aussen Politik. English(ed.)*. Vol. 38. March. 1987.
- David Mason. "Glasnost, Perestroika and Eastern Europe." *International Affairs*. Vol. 44. No. 3. Summer. 1988.
- A. Hewelitt. "Gorbachev's Economic Strategy : A Preliminary Assessment." *Soviet Economy*. Vol. 1. No. 4. October-December. 1985.
- Elena Buzayeva & Valeri Uspensky. "Business Cooperation in Europe : Problems and Prospects" *International Affairs* (Moscow). October. 1987.
- John Battle. "Can Gorbachev Reform the System?" *International Perspective*. May-June. 1986.
- John Battle. "Uskorenie, Glasnost and Perestroika : The Pattern of Reform under Gorbachev." *Soviet Studies*. 1988.
- Marshall I. Goldman. "Gorbachev and Economic Reform." *Foreign Affairs*. Fall. 1985.
- Marchall I. Goldman. *The USSR in Crisis : The Failure of an Economic System*. New York : Norton. 1983.
- Seweryn Bialer. "Gorbachev's Move." *Foreign Policy*. No. 68. Fall. 1987.
- William Mills. "Gorbachev and the Future of Sino-Soviet Relations." *Political Science Quarterly*. 1986.

〈ABSTRACT〉

A Study on 'PERESTROIKA' in Gorbachev.

Kweon, Kum Hee

Department of National Ethics Major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eju National University, Cheju Korea

Supervised by Professor Ko, Seong Joon

This thesis aims at examining Gorbachev's political revolution which has been propelled under the slogan of 'Perestroika' in order to escape from the crises of Soviet Union itself.

Gorbachev's policy reflected in Perestroika is summarized as follows :

First, Gorbachev characterized the main reason of Soviet Union's crises as decline of political ideology and depression.

Thus, Perestroika means a reform for them.

Second, Gorbachev insists that Perestroika should be reveloutional and transitional in its character and that its end should be a socialistic democracy through increasement of socialism and expansion of economic revolution.

His principle of leadership is based on glasnost, socialistic democracy and peaceful competition.

Therefore, the ideology in Perestroika does not abandon socialism but complete returning to Leninism and liquidation of Stalinism.

In political and social aspects, glasnost puts stress on more freedom of expressing political opinion and contribution to social activation.

His democratic policy of society strives to change the political system,

keeping the cooperative horizontal organization, revolutionizing election system and getting rid of hard bureaucratic system.

In an economic revolutionary side, Perestroika emphasizes economic efficiency improvement through material incentive of labour intention, elevation of investment efficiency, free extension of consumer's choice and independence of enterprise as an effort to escape from government-control economy system.

In diplomatic policy field, Perestroika insists 'new political thinking' friendly cooperation and openness to western district, based on coexistence peace.

Perestroika comes to expand a series of peaceful policy in Asia-Pacific area.

Finally, Gorbachev's Perestroika is a basic example which shows the depth and limit of change in communism system.

From a viewpoint of comparative communism, Perestroika is of great significance.

Whether or not Gorbachev's effort will be successful is not sure but his reform policy goes toward the openness within the framework of socialism.

The whole process of revolution will be contributed to the general stability of international society.

